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중언이로라 (사도행전 3:15)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4월 12일 (토) 제 147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2014년 부활절 4월 20일...주님 기대하시는 부활 의미 되새겨

부활절은 기독교의 중요 절기의 하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부활절은 3세기경에 유럽이나 중동의 다신교 전통과 상징물들의 접목으로 시작됐다. 이것은 다신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치 오늘 날 상황화를 시도한 복음전도를 위한 접촉점 찾기의 일환이었다. 즉 다신교 의식이나 문화에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오랜 세월 그런 과정을 거쳐오며 오늘날의 부활절로 자리를 잡게 됐다.

부활절은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진다. 빠른 경우는 3월 넷째 일요일, 늦을 경우는 4월 넷째 일요일에 올 수도 있다. 이처럼 날짜가 일정하지 않

그러면 주님은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이건 의미 있는 사건을 기념하는데 있어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아니다. 부활절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시며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다. 또한 행사를 치르는 형식은 나라마다 교회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름도 있기에 사사건건 시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형식의 드러냄 자체가 목적이 돼 기념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이벤트가 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교회 출석의 길고 짧은에 관계없이 그것은 인간이 지닌 종교성 그 이상이 아니다. 성도는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다. 우리에게 부활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활신앙의 현저한 퇴색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시대사상과 함께 생명공학의 발전이 오히려 부활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생명의 신비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결과이지, 결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가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돼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부활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폄박하던 그가 가장 위대하고 현실적인 복음전도자로 변화된 기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과의 실제적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예수부활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급진적인 변화는 예수부활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실제적 증거다.

그러면 특별히 2014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 먼저 죽고 나서야 부활은 소망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진리는 역설의 진리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것은 부활의 의

의 것은 태음력으로 계산해 지켜지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지켜오다가 기원 후 4세기에 들어서면서 날짜에 관한 의견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파스칼보름'(Paschal full moon: 기원 325년 당시 춘분이었던 3월 21일 이후 첫 보름)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부활절을 정하면서 논쟁이 정리됐다. 파스칼보름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오늘날에도 이 방법으로 날짜가 계산된다. 따라서 올 해의 부활 주일은 4월 20일이다.

미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죽는 삶, 그 삶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증인된 삶이며 그 삶이 이 땅을 살아야 할 믿는 모든 자의 존재 이유다. 지식 전달이 아닌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결과로 인한 변화된 삶. 그것이 부활 생명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신비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유난히도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WCC 한국대회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교계의 불

협, 몇몇 대형교회의 각종 비리사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해가 바뀌었지만 2014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온갖 부패상이 공공 매체에 활자화 되고 이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며 질타하고 혼계한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믿음만을 강조한 탓인지도 모른다. (종교)개혁시대의 상황과 맞물린 현실적 측면의 강조였을 뿐인 그 믿음을 말이다. (2면으로 계속)



부활절 초대 시

영원한 사랑의 첫 열매!



시인 박상희 | 프라미스교회 권사

백합보다 더 고우신 이마
짓눌러 쓰신 가시 마디마다
피어난 부활의 꽃
이야침 더욱 환합니다

나의 눈물로 얼룩진 당신의
사랑이여
겻세마네 바위 등 모서리 부둥켜안고
흘리신 그 피눈물 그 몸부림

하늘과 땅 참을 수 없어
바위의 가슴 찢고 우르렁 우르렁
쏟아내린 하늘의 눈물이어

나의 흉악죄 말갈게 씻어내린
용서와 구원의 그 순간이여

다 이루었다 하신
당신의 사랑의 사흘날 첫새벽
아, 부활의 첫 열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하는
새롭게 피어서

이리도 부시고 뜨거운
가슴, 부활의 첫새벽,
영원한 안식의 첫날을 피신
오묘하신 진리여 길이어

우리 당신의 제단위에 피어난
부활의 한 송이 아리따운 찬양의 꽃

영원한 사랑의 열매여라!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4월 19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면

부활절 특집 설교
김성국 목사(켄즈장로교회 담임)



3면

크리스천 “보함성조 프로그램” 호황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5면

“지역사회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 장로교 (PCUSA)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2012년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하여 한인 이민 목회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 센터 (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를 봉헌하는 주 예수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미나 (Missional Church Seminar)”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 -

※주제강의※

강의1: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al Church)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Heart Stream 한국센터(선교사 펌버게어센터) 공동대표
국제로전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역임(2004-2011)
현, 국제로전위원회 신학위원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Associate

강의3: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
(Missional Church and Diaspora Ministry)



배현찬 목사
주 예수 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미주기아대학(KAFH) 이사장

강의2: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Missional Church and Global Mission)



김중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30년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MC) 공동의장

강의4: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Congregational Life of Missional Church)



노승환 장로
주 예수 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현장방문※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참여
(Practicum)

- 노숙자 숙박사역 (Caritas / 선교관)
- 노숙자 식사사역 (Monroe Park / 공원)
- 빈민촌 주택보수 (Renew Crew / 리치몬드 시)
- 산골빈민촌 사역 (Appalachia Service Project - 영상)
- 인종화합 합창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 영상)
- 한국음식문화축제 (Korean Food Festival - 영상)

일 자: 2014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 14일(토) 오후 3시
장 소: 주 예수 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숙 박: Sheraton Richmond Park South Hotel
등록인원: 30명
등록비: \$100 (교재 포함 및 숙박), 선교사(등록비면제)
등록처: 주 예수 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ijkc.org)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 주 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 주 관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CUSA)
- 주 원 한인 세계선교 협의회 (KWMC)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560-7500,7509 Fax(804)560-7514

오늘 본문에 “예수의 생명”이라는 구절이 두 번(10절, 11절)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 이처럼 고귀한 단어가 달리 있을까요? 참으로 가슴 뛰는 구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무엇을 다 소유해도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섬기는가?” 등은 귀한 질문들이요, 반드시 긍정적인 답이 있어야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내 안에 과연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이며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인 책을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죽음의 문제를 점차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년이 또 흘러간다면 과학은 결코 죽음을 상대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과 맞붙어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죽이신 분이요 또 죽음을 죽이실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죽음 아래 있는 것들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씹, 답답한 일, 압박, 거꾸러뜨림도 예수님의 생명에 적수(敵手)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고 일어난 것은 자기들의 의지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부여 받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가 만들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본문 14절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선물 중의 선물이요 사라지지 않고, 닳지 않고, 다시 되돌려 달라지 않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부활절 특집 설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4:7-15)

김성국 목사 | 퀸즈장로교회 담임

이 없다면 행복도 성공도 다 아침 안개와 같이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기독교의 그 어떤 것도 논(論)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思想)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꼭 가져야 할 “예수의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입니까?

1. 죽음을 죽인 “예수의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삼킵니다. 죽음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너던 와이너가 “과학, 죽음을 죽이다”라는 다소 도발적(挑發的)

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압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7절)한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아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낙담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확신 있는 말을 합니다. 절망과 좌절, 염려와 근심, 질투와 분노, 탄식과 원망, 이런 것들은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 확실하게 죽었노라고 외치며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 선물로 받은 “예수의 생명”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

자가 누구입니까? 사형수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사면(赦免)을 사형수가 무슨 연유인지 받아들이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영원 전부터 해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지한다면 그 누구도 상상이나 기대할 수 없었던 선물, 감동이라는 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선물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그 선물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은 보아야 합니다. 그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갖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님의 거룩한 은총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사셔야 합니다.

3. 감사가 넘치는 “예수의 생명”

예수님은 감사가 넘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감사하셨습니다(눅9:16).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도 감사하셨습니다(요 11:41). 십자가를 앞두고도 감사하셨습니다(막14:23).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감사는 선언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생명을 주

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5-58).

사람들이 일할 때에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서워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감사가 넘쳐서 자신도 피곤치 않게 일하고 남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섬

기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듯 죽음을 죽인 생명이요 선물로 받은 생명이며 감사가 넘치는 생명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절이 날에 우리를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부르고 또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1면에서 계속)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도 바울이 만난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구원에 관한 믿음에 더 할 것이 없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개혁의 바람이 필요한 때다. 관념적인 사색적 교리 논쟁이 아니라 삶의 개혁이다. 영무세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신학자가 변해야 하고, 자신의 삶은 여전히 변화할

줄 모르고 강단을 휘어잡는 목회자가 변해야 하고, 이들을 비방하며 안티만 양산하는 일단의 지식층 성도들이 변해야 한다.

부활생명은 변화의 기본적 근원이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변화된 삶의 특성은 이미 언급한 대로 자기를 죽이는 삶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기에 바빴다. 자기 사랑과 자기 우상화의 결과다. 남보다 더 커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했다. 내 안에 있는 자

아가 죽지 못한 까닭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선언을 그렇게 자주 인용했건만 앞만 무성하다. 방향성과 목적성의 문제다.

성경은 목표지점의 빛나감을 ‘죄’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파 회심의 현저한 특징이다. 교회는 성전이란 이름으로 거대한 건물 짓기에 매달렸고 이제는 대중의 시대적 사상에 편승한 가치관의 혼돈 속에 갈 방향을 잃고 무겁게 주저앉아있다.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역동성을 잃은 까닭이다. 회복이 필요하고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외적인 드러냄의 기쁨비적 행사보다는 그 속에 담아야 할 부활생명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원리 아래 저마다의 처해진 각자의 위치에서 부활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2014년 부활절을 맞으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행2:3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Doctor of Ministry. 본교소개: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크리스천 “보험상조 프로그램” 호황

CT, 성경적 원리로 가입자와 동시에 의료적, 신앙적 혜택 받아

오바마케어 가입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막판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공식 웹사이트는 4월 1일 오후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도 4월 15일 자정까지 공인상담사 및 에이전트와 가입절차를 밟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마감일을 연장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온라인 접속 과부하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은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어카운트조차 만들지 않았던 미가입자들에게도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신문 방송에서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 이 2주 또는 2개월 연기됐다고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오바마케어 가

입마감이 연기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백악관 역시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600만 명까지 가입시키기 위해 가입 신청의 편의를 이처럼 연장시킨 것이지만 크리스천들은 그 대안으로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보험상조 프로그램들로 대거 가입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티티투데이(CT)는 전한다 (Obamacare's Bump: More Christians Now Sharing Health Care Costs: Christian alternatives to traditional insurance see surge in enrollments).

연방정부 기능이 '쇳다운'되는 진통 끝에 야심차게 출발한 '오바마 건강보험'은 아직까지도 원래 의도한 600만 명 이상을 가입시키지 못했다. 많은 직원이나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 역시 가입의무 대상인 풀타임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보직을 변경해서라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들에, 가입이 마비가 될 정도로 밀려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안 면제 대상으로서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전통 보험회사 구조의 보험 프로그램들은 실속 있는 가격대비와 함께, 피보험자



하려 혜택을 받고 있다. Medi-Share는 플로리다, 콜로라도 그리고 텍사스에서 신규 가입자 폭주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해마다 최소한 7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마리탄 미니스트리 역시 지난 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천의 가정들이 등록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결론으로,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원리에 크리스천 헬스케어 상조 프로그램이 부활되기 때문이다. 자신도 물론 도움을 받지만, 당장 의료적인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주어지기에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합류하고 있다. 그리고 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오바마케어 4월 15일로 마감연장 불구 벌금 부담 의료보험 대안책 아울어 크리스천 돕기 이중효과

들이 내는 월 보험액 중 일부가 바로 크리스천 사역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앞 다퉈 가입을 하는 원인이자

실제로, 지난달 오바마케어 마감일인 31일,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보험 부담금을 서로 도우며 낼 수 있는 오바마케어 대안 프로그램들에 가입을 마쳤다. 미전역에서 가장 큰 보험 상조사역 단체인 '사마리아 미니스트리스'에는 가입자들이 매달 2배, 3배로 늘어 현재 113,000명으로, 작년 대비 43%나 증가했다.

또 다른 대형 크리스천 보험 상조 프로그램인 Medi-Share에도 역시 지난 10월에 출범해서, 하루에 500 건이나 되는 가입 문의가 쏟아질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8,200명 이상이 가입을 마쳤고 지난 3월에만 7%가 증가했다.

지난달 휴스턴의 자영 사진작가인 케이티(Katie Lamb)는 지금까지 그녀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 건강보험을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니스트리스(CHM)'를 통해 보험금상조프로그램으로 변경했

다. 현재 28세로 건강한 케이티는 아직까지는 정기적으로 의료비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녀가 크리스천보험상조프로그램으로 보험을 바꾼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인 다른 크리스천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보험회사에 건강 보험금을 납부해오고 있었지만, 당장 의료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크리스천들을 위해 자신의 보험금이 먼저 선용된다는 것에 의미를 더 두게 된 것이다.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이나 직원들의 보험비를 부담하는 기업 그리고 보험이 없어서 의사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케이티처럼 당장 의료적 혜택과 더불어 위로의 편지나 화환을 보내주는 "상부상조"의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만큼 크리스천 보험상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구조 즉 가입한 크리스천들의 자금과 믿음에 의존해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의료적인 조치와 함께 희망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보험상조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나 교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 그러나 이사진들의 견제와 균형 즉 재정 감독 소홀로 운영에 손상을 입기도 했다. 실제로, CHM의 전신인 "기독교인 형제애 뉴스레터"의 리더들이 지난 90년대 말에 2천5백만 달러를 횡령하기도 했을 정도다.

그러나 관리 체제 개혁과 재편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있어, 오바마케어의 단점들을 대신할 대안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보험상조프로그램 확장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주정부가 동 사역의 활동을 결정한다는 점이다(현재 미전역에서 26개 주만이 동 사역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Medi-Share'는 2012년 센터가 추가 활동을 금지하게 하는 바람에 사마리탄 미니스트리 스에 보험 가입자들을 소개해 주기만 했다(2013년에 허용).

그러나 동 사역은 현재 오바마 건강개혁 법안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 정책의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오

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오바마케어의 필수조항인 '전 국민 보험 가입의무 조항'의 벌금 규정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동 프로그램들은 '종교적 예외(Religious Exemption)' 대상의 501(C)(3)에 해당돼 벌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크리스천들이라면 거주 지역,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전국에서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 100%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 오바마케어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의료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동 프로그램 중 크리스천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의료보험과는 다르며 의료비 공동부담 개념이다. 지난 1982년 오하이오 주 브루스 호손 목사가 대형 교통사고 후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가 나오자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출발 계기가 됐다. 당시 교인들은 심심일만 모은 돈을 호손 목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이 방식이 의료공제조합 형태로 발전했다.



시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활절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그리스도인들의 2대 최대의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교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잠사되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교리이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그리스도처럼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 모두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다시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핵심교리요, 전해야 할 순 복음이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교계나 교회들마다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강단마다 아름다운 백합꽃이 장식되고 그 향기가 예배당 안을 진동시킨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활절 칸타타와 뮤지컬은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어 교인들의 박수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득 메운다. 모든 회중들이 큰소리로 "예수 다시 사셨네"를 합창할 때면 그 감격은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 그 다음 부활의 증거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주렁주렁 맺혀져야 한다. 부활은 생명이다. 생명은 살아 움직인다. 즉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후대 믿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이다.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은 개인적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가, 기쁨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1) 분열대신 화합하여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믿는 자들의 숫자의 증가나 교회의 숫자의 증가적인 면에서는 크게 발전했으나 하나 됨보다는 분열의 역사를 거듭해왔다.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단체의 이기심 때문에 사분오열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는 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화합하여 하나 되고, 교리와 교단이 다르지만 개 교회의 연합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부활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민족통일을 이루는 일에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 하셨다.

2) 부활절이 믿는 자들의 축제, 잔치로 끝나지 말고 주변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해주며, 구제의 손을 펴는 기회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교회의 형편상 쉽지는 않지만 부활절 감사헌금이 경상비로만 사용되지 않고 불우한 이들을 위한 구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일, 노숙자들을 위한 일, 도박과 마약에 중독된 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3) 부활의 주님은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복음으로 남북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가 조성되며 부활의 복음을 통한 통일한국의 그날을 바라보며 금번 부활절에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주시리라 확신한다. 나만의 부활절, 우리 교회만의 부활절이 아닌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는 뜻 깊은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미주오순절연합 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 (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남,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 (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안수
①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 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 (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 (소정양식)
- 4)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 (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5. 기타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제 조용기 목사)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제 활동) 교재와 교류 (정기모임 Net-Work 형성 한국 - 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 318-9521 / 최명상 목사 (323) 317-3749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이쑤시개

30년도 훨씬 넘은 일이지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배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정읍(지금엔 정주시)에서 개척을 할 때였습니다. 개척 초기에 든든한 기업체에서 매월 도움을 받기로 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한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지만 기업체에서 약속한 도움이 오지 않았습니니다.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답답한 나머지 기업체를 찾아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문이 닫혀있고 회사는 부도가 나서 사장님은 다른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쭉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읍역 앞에 있는 상가를 얻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세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니다. 궁리 끝에 사택과 교회 보증금을 빼서 정읍시 변방에 철거민들이 사는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집은 이태리식 건축구조로 이중 다락방이 있고 앞

마당이 있어 이중 다락방에는 기도실을 꾸미고 앞마당에는 비닐 하우스를 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전도사 내외가 이사 와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한다고 하니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인이라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 약간의 청년들이 전부였습니다. 힘겹게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니다. 주일예배 후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 최요한 목사님을 만나러가자고 하셨습니다. 소풍가는 마음으로 우리 내외와 어린 아들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목포로 내려갔습니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꿈으로 저희가족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밤 꿈에 큰 잉어 3마리가 내게로 왔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실 것을 알고 중요한 약속을 모두 뒤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니다"하시면서 저희를 인근 식당으로 인도했습니다. 반찬이 30여 종류가 넘는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생선 처음 보는 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식사 후 목사님께서 저희 내외를 교회 기도실로 안내했습니다. 기도실은 교회 강단 아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특히 목사님 교회는 1년 내내 끝이지 않고 24시간 기도 당번들이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내외도 그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진동이 개척으로 힘을 소진한 우리 내외에게 강하게 역사함을 느꼈습니다. 기도 후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택으로 부르시더니 분홍색 꽃방석에 나란히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문갑서랍에서 박카스를 꺼내어 한 병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시고는 다시 문갑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어 주셨습니다. 문갑 안에는 여러 개의 흰 봉투가 싸여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목사님께서 흰 봉투에 각각 3만원씩을 넣어 어려운 교역자가 오면 밥 사주시고, 기도 해주시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시며 흰 봉투 한 개씩을 주어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 전도사 이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차를 타고 귀가한 우리 내외의 발걸음이 머무른 곳은 3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환자의 가

정이었습니다. 아들 형제들이 교회를 처음 출석하기 시작한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니다. 그 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가 상의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회의 큰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가난한 후배, 선교사들을 두루 살피주시며 자상하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사랑해주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은 어느새 목회의 멘토가 되어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둔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엄 목사! 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나쁜대로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도 받고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한 가지 잘 못이 생각났지 뭐냐...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가서 변상을 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을 시키자니 노망났다고 할 것 같고. 엄 목사가 나의 부탁을 들어줬으면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몇 년 전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을 다녀오셨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 칸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식탁위에 있는 이쑤시개를 한 개 뽑아서 쓰시고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왔으니 이것은 절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식사 후 한 개는 당연히 써도 되지만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왔으니 변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신 가서 사죄를 하고 상응하는 변상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역전으로 달려갔습니니다. 역장님을 만나 사정을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사연에 감동한 역장님은 문밖까지 쫓아나와 고개를 숙이며 이제까지 이런 분은 본 일이 없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늘 겸손하셨던 목사님... 모든 목회자, 선교사들을 귀하게 섬기시던 목사님... 파산한 사랑으로 모두를 감싸 주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그립습니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찮은 이쑤시개를 통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신 선배 목사님을 더욱 본받고 싶습니다.

힌두극단원리주의자 득세...종교간 마찰 우려

CT, 타종교 억압 나렌드라 모리 인도 차기총리 유력불구 기독교계 무심 보도

힌두교 극단 원리주의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주 총리는 인도에 분열을 조장하는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의 지도자로 차기 총리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힌두교 민족주의 계열의 구도와 종교 폭력 사태와 관련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독교계가 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사실이 놀랍다.

따라서 크리스천투데이(CT)는 최근 인도 기독교 지도자들의 너무 태연한 까닭을 밝혀(India's Christians Shrug: The country's likely next leader is a Hindu nationalist who has suppressed other faiths. Why church leaders aren't worried), 그 안타까운 사실을 보도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디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1월 시리아 자코뱅 교회의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모디가 당선된다고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실상 그의 발전적인 노력들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 경제는 2011년 연 9.3%의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5%대로 추락했다. 인도 내 소수 크리스천들은 2008년 이후로 정권을 잡아온 의회당(Congress Party)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부패와 스캔들,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으로 이 당의 위상은 손상됐다. "의회당은 오랫동안 그들을 지지해 온 빈곤층, 달릿(불가촉천민), 부족들과 소수민족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전 인도기독교협의회(AII

India Christian Council) 공동 설립자 존 데이일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도의 경기 침체는 BJP당이 재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 극우 힌두민족주의자들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인도를 지배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들이 기독교와 무슬림에 대항해 폭력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 63세인 모디는 2001년부터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총리로 재임하고 있다. 인도 기업들이 선호하는 신규 직종의 72%가 이 주에 있다. 모디는 최근에 발생한 최악의 종교 폭력 사태에서 거리를 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2002년 2월에 힌두교 시위대가 구자라트 주민 1000명을 죽였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었다. 58명의 힌두 순례자가 무슬림 극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보

이는 기차 방화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된 이 충돌은 "대학살"로 불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모디가 파키스탄에 방화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자라트 주 정부가 방화를 통한 인종 학살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2010년 인도 외무부 장관은 당시 사태를 유대인 대학살에 빗대기도 했다. 모디의 정치적 입지는 그가 2002년 사태 당시 저지른 실책에 대해 무죄라는 특별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에 급성장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모디가 힌두교 증산증을 육성하기 위해 소수 종교인들을 차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모디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1200만 기독교를 대표하는 전국 교회협의회 회장인 타라나트 사가

주교는 모디가 경제발전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모디가 임기에 들어갈 경우 그가 속한 당이 최근에 추진해 온 힌두민족주의자 강령(Hindutva)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강령엔 강력한 개종금지법, 힌두교에 대한 대중비판 단속, 더 나아가 소수종교 집단에 대한 차별이 들어있다. BJP당은 몇 개 주에서 강력한 개종금지법을 추진한 바 있고, 모디 역시 2008년 가장 악명 높은 법안 중 하나에 서명했다. 종교적 역사에 비해 인도에서 아직 기독교의 정치 종교적 영향력은 미비하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은 하층 힌두 카스트 집단이거나 인도에서 소외된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무슬림, 힌두의 갈등보다



그 관계가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종교적 선동이 나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특색은 인도의 기독교가 더욱 확장되지 못한 채 소수 종교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끔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강력한 힌두, 무슬림 속의 기독교가 인도 속에서 어떤 발전 과정을 거치는지 지켜봐야 한다. 결론으로, 방갈로 지역 연합신학 교 교회학과 텍스터 마벤 교수는 "모디를 바빌론 시대에 유대인 소수자들을 도왔던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우스 왕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했던 헤롯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와 새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고 인도 문화 속에서 평화롭게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기쁘게 받아들일 만하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 I. 지원 자격**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척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5년 이상 목회 경험에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있는 분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걸림 사유가 없는 분
- II. 제출 서류**
 - 이력서 (소정 양식)
 -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 V. 기타**
 -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로부터 발송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볼수 있음.

2014년 3월 28일

뉴욕 새교회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제1회 ITS 통일선교 강좌]

ITS 한국어 프로그램과 통일선교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일선교-북한강좌에 교민 여러분과 북한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ITS와 미주 통일선교아카데미는 제1회 협력 강좌에서 한국과 미주의 통일선교아카데미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귀한 강의를 해주신 서훈 박사님을 모시고 현재의 북한의 사정과 우리의 선교를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정은 체제와 그 미래에 대한 전망>

서훈 박사
(전 국정원차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99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
2004.2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2004.12 국가정보원 대북전략실장

시간: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저녁 7-9시
장소: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3층 강당
3130 Wilshire Blvd., LA.CA.90010
(주차는 학교 뒤나 지하 파킹장에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3225 N.Tyler Ave., El Monte, CA 91731
www.itsla.edu

Korean Program Director 김재영 목사/ 미주 통일선교아카데미 교장 김철용 목사



최근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영된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로 인하여 고대 로마와 성경역사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과연 2000여년전에 사라졌던 폼페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폼페이(Pompeii)는 고대 로마의 도시로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부근의 도시로, 주후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산 분화로 화산재와 분석에 묻혀 파괴되었다.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다. 폼페이 발굴은 1549년 수로공사 중에 유적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1748년 발굴로 광장, 목욕탕, 원형극장, 약국 유적 등이 발견되었으며, 본격적인 발굴작업은 19세기에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는 거의 5분의 4정도가 발굴되었다. 발굴이 완료된다면 로마 미술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큐피드 벽화'와 '춤추는 폰의 동상' 등의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 더욱 많이

를 부어 복원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폼페이의 모습을 2천년전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발굴현장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로마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현장을 목도한 현대인들도 폼페이의 최후를 타락한 도시에 내린 하나님의 벌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질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폼페이의 멸망 혹은 디도의 죽음과 연관되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Hershel Shanks는 2010년 Biblical Archaeology Review에 커버표지로 실린 글 'The Destruction of Pompeii - God's Revenge?'에서, 그 후 다른 글들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폼페이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역사적 자료들을 조사를 한 것이다.

폼페이의 멸망을 로마시대의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프

가운데 나타난 전리품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촛대도 조각되어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2번에 걸쳐서 훼파 당한다. 첫 번째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제국의 느브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다. 바벨론은 느브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꿈에 나타난 것처럼 머리의 나라이고 금의 나라였다. 바벨론은 세상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나라를 다시 바벨론으로 묘사한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브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지만 바벨론제국은 손자 벨사살 왕 때에 메대와 바사에게 그야말로 순식간에 멸망당한다.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다.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에 멸망시킨 헤롯의 성전은 사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서 세워진 스톱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이다. 제2의 헤롯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53년 동안 성전공사를 통해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이였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디도 장군에 의해 돌이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of the Sibylline Oracles'을 지적한다. 거기에는 쉬빌이라는 여인이 예언한 예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글은 기독교인에 의하여 보존되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폼페이의 멸망을 직접 연결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형벌로 내린 재앙이란 신학이다.

더 직접적인 자료들은 폼페이 현장에 남아있다. 폼페이의 9번 구역 하우스(House) 26번에서는 벽에 석탄으로 쓴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라틴말로 '소돔과 고모라' 라고 써 있었다. 지금 나폴리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화산폭발로 불덩이들이 날아오는 그 현장에서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창19장)을 연상하고 유대인이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유대인이 주인으로 보이는 더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그림이 발굴되었다. 벽에 솔로몬의 심판이 그려져 있었다(왕3:16-18). 그 외에도 폼페이에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정경예식에 대한 모자이크, 결례용 항아리, 십자가 모형 등을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디도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주님이 마24장에 예언하신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요즈음 시신기증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주님 재림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는데 시신 기증을 하면 기증자의 시체는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시체는 화장해서 바다에 뿌린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죽은 육체는 이미 썩어버리니 죽은 자의 장기를 필요한 자에게 주면 받는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좋은데 부활 때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 어디서 주를 만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주고 부활 때에도 지장이 없을런지 성경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LA에서 이경호

A: 유대인들의 장례문화는 전통적으로 매장입니다.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의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성경에는 화장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한국은 국토가 작아 매장할 땅이 넉넉하지 않아 화장 문화를 권고하고 화장이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편리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매장이나 화장이냐를 논

어떤 모습이면 죽은 후 부활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

고 찬반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나 학자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은 땅에 그대로 묻는 매장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야 그 상태에서 재림 때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화장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을 하더라도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화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하여 몸의 일부가 화장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때문에 얼마든지 부활 때에는 원래의 형질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화장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화장한 시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시139:15-16절을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육신의 형질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 때에 온전히 부활시킬 것이기에 인간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죽음이전에 지녔던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는 것이기에 부활한 몸은 사망이전의 육체 상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증자가 자기 몸의 일부나 재생산되는 부분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고 이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거나 상대방의 삶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15:13절, 롬5:7, 요일3:16).

폼페이의 멸망과 디도 황제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후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발생한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다. 탈출에 늦은 사람들은 지상을 뒤덮은 고온가스와 열기류에 질식사하거나 뜨거운 열에 타 죽었다. 역사가들은 이 폭발로 폼페이 인구의 약 10퍼센트인 약 2천여 명이 도시와 운명을 함께 했다고 한다. 불과 1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2천년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역사 앞에 2천년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심지어는 빵 굽는 화덕에 빵이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모습과 자세도 그대로 남아있다.

역사가 Dio Cassius는 '로마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화산의 불은 세라피스 신전과 이시스, 넵툰, 주피터 신전 등 수 모든 신전들을 불로 뒤덮었다." 신들에게 내린 재앙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폼페이는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로서 상류계급들이 별장을 건설했던 휴양지이기도 했다. 폼페이 발굴을 통해서 당시의 로마의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발굴된 당시의 생생한 벽화들, 공동 목욕탕, 그리고 수많은 유물들, 화산재에 묻힌 사람들을 석회

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8월말로 당시의 역사가 소(小)플리니우스는 폼페이의 멸망을 8월 말이라고 기록한다. 멸망한 일시를 연결하려는 사람들은 있다. 사실 폼페이 멸망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언들은 당시 로마의 정치가 소 플리니우스가 역사가 타키투스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 상황이 상세히 묘사된다. 그는 현장을 목도한 생존자였다. 그의 숙부인 대 플리니우스는 당시 현재의 신장으로 함선을 이끌고 구조활동을 펼치다가 독성이 강한 화산 가스에 질식사 죽는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디도이다. 바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로서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다. 디도는 예루살렘 공격 사령관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대부분의 유대반란을 진압한다. 그는 마24장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뿐 아니라 성전도 무너뜨린다. 비참한 전쟁으로 110만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다.

우리의 관심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훼파한 디도가 어떻게 되었을까다. 지금도 로마에는 디도의 개선문이 있다. 그 부조 조각

다 훼손 당한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는 주후 79년에 황제로까지 등극하게 된다. 그는 인기 있는 황제였다. 자기를 비판해도 관용했다. 원로원과 관계도 좋았다. 재난구호에 힘을 썼다. 그는 모든 유대인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디도는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헤롯 아그립바 2세의 누이동생인 베니게(행25:13)를 사랑하지만 클로오파트라와 같은 문제를 일어난 것을 우려한 원로원의 반대로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디도 황제는 콜로세움으로 알려진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끝없는 재해로 시달린다. 황제에 즉위한지 2달 만에 베시우스 화산폭발로 나폴리 근교의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스타비아아 등의 주요 도시가 완전히 땅속에 묻히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로마는 계속된 재난과 질병으로 몸살을 앓는다. 페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 디도는 열심히 재해구호에 힘쓰다가 주후 81년 9월 13일 황제로 즉위한지 불과 2년 만에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죽게 된다.

하버드 대학의 Shaye Cohen은 폼페이의 멸망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라는 질문에 'Book 4

을 보거든'이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스톱바벨이 지은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히고 제우스신과 우상숭배로 훼파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하는데 동의한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예포로 예루살렘을 온전히 훼파한 디도 장군을 말한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 대환란 때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여서 하나님을 훼방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은 바벨론과 느브갓네살처럼, 로마의 디도 장군처럼, 폼페이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어둠과 죄악의 세력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아의 왕국을 여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폼페이의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적그리스도와 추종자세력들이 멸망당하는 계시록의 모습을 역사 속에 보여주는 또 다른 징조로 보인다.

우리는 말세지말 발가락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이 문밖에 이미 오셨음을 깨닫고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아가페 선교침례 교회 담임목사 청빙

- 자 격
 - 1). 학력 : 일반대학교 및 정규신학 대학원(M.Div.)졸업자
 - 2). 경력 : 목사 안수후 목회 경력 또는 선교사 경력 소유자
 - 3). 특기 : 한. 영 이중언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1). 자필 이력서(3개월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 첨부) 1부
 - 2). 본인 소개서(성장배경, 가족사항, 신앙관, 신앙간증 포함) 1부
 - 3). 사모 소개서 1부
 - 4). 목회 철학, 계획서 및 비전 1부
 - 5). 존경하는 목사님 또는 신학교수 2분의 추천서 각 1부
 - 6). 학위증명서 각 1부 - 2차 서류제출
 - 7). 건강진단서(사모포함)-2차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14년 4월 30일
- 제 출 처 Agape Mission Baptist Church
Attn : 임시 담임목사 오후렌세스 원로목사/청빙위원회
1635-A Palolo Avenue
Honolulu, Hawaii 96816
Email: caseyohhi@hotmail.com
- 기 타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결과는 개별 통지함.
 - 2). 지원관련문의는 교회: 808-735-0011

아가페 선교침례 교회

임시 담임목사 오후렌세스 원로목사/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 구독료 | 미국 | \$100 | 유럽 | \$190 |
| | 캐나다 | \$110 | 남미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
| 신청 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 글 : _____ | 목 사 <input type="checkbox"/> | |
| | 영 어 : _____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 |
| 배 달 주 소 | _____ | | |
| 전화/Fax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받는분 이름 | 한글 | 영어 | |
| 전화번호/Fax | () () | () () | |
| 배 달 주 소 | _____ | | |
| 교회/기관명 | _____ |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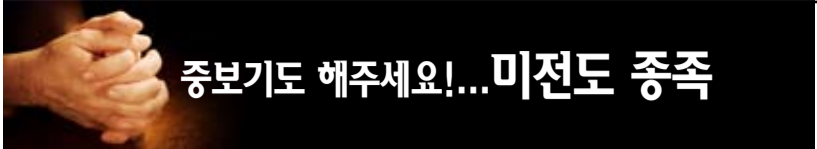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앙아프리카 북부의 키르디(Kirdi)



“이 교도”를 의미하는 키르디라는 말은 카메룬의 북부, 나이제리아의 남동부, 차드의 남서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종족 집단들의 포괄적인 집합명이다. 한때 이 집단들 모두는 완전히 이교도였다. 오늘날 그들 중 일부는 무슬림이 돼서 전통적인 이슬람 의상을 입고 있다. 모든 부족들은 차드어인 비우-만다라어의 제각각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풀베족이 중앙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지배적인 종족이다. 1800년대, 풀베 이외의 키르디 부족들은 풀베족의 지배에 강렬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만다라 산맥과 언덕, 외진 계곡으로 도망해 현재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화려한 유색의 옷이나 유리 염주를 해서 다른 키르디 부족과 구별이 되는 팔리족은 나이제리아의 무비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구두프족과 아파데족은 차드의 국경 근처의 나이제리아 북동부에서 살고 있다. 무스구마족은 차드의 남서부 평야, 주로 봉고르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나머지 부족들은 카메룬 북부의 언덕과 평야지대에 살고 있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보다 현대화되고

고 있다.

삶의 모습

키르디족 대부분은 산비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다. 팥, 옥수수, 수수가 주 경작 작물에 속한다. 멜론, 호박, 콩도 재배한다. 수수와 그 밖의 곡물류는 산이나 언덕의 경사지에서 재배하며, 다른 작물들은 집 근처의 밭에서 키운다. 면화, 염색에 사용하는 인디고, 사냥이나 종교적 치료,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물도 재배한다. 키르디 남자들은 가죽공예, 바구니공예, 방직, 건축 등의 일을 한다. 여자들은 직물 물건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식사준비 등 기타 가사 일을 하며, 작은 밭에서 자신이 쓸 작물을 키우기도 한다. 이 작물을 팔아서 번 수입은 여자의 것이 된다. 아이들은 작은 동물들을 돌보며 행이나 부모님을 도와 집안 허드렛일을 한다.

전통적으로 씨족이나 혈통 단위로 작은 마을에서 모여 산다. 마을은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산 정상 주변에 모여 있다. 마을에는 진흙벽돌로 쌓은 장벽으로 보호되어있고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둘러져 있다. 오늘날은 진흙벽돌과 초가지붕으로 만든 둥근 건물들이 몇몇 모여 있으며 건물들은 짚으로 된 울타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중앙에 열린 광장이 생기도록 건물들은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 각 가정에는 부엌과 다락, 남편이 쓸 방이 있으며, 아내는 따로 오두막에 살고 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집에 별도의 방이 더 만들어진다. 젊은 남자는 정방형으로 된 자신의 오두막을 얻게 되고 그 곳에서 결혼할 때까지 살게 된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대부분 한 아내만 있다. 결혼은 부모가 결정하며, 정혼이 되면 신부값이 신부의 부모에게 지불되고 새로운 신

혼가정이 탄생된다.

키르디의 문화에는 노래와 연주 등 다양한 예술이 있다. 팔리족과 같은 일부 부족은 상당히 숙련된 음악인이고 가수들이다. 그들이 쓰는 주요 악기는 호각, 피리, 뿔나팔, 하프, 타악기 등이 있으며 축제 때나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연주된다. 모든 씨족의 거주촌에는 치료주술사나 의료인이 있어 다양한 약을 만든다. 그들은 사람과 영혼 사이의 중재자가 되며, 간단한 외과수술도 한다. 의료인은 마을 사람들로 부터 수수한 대가를 받게 된다.

신앙

키르디족 가운데 2개(팔리족과 무스구마족)가 부분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전통적 부족 신앙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키르디족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자신의 창조물을 질서있게 하는 유일신을 믿는다. 그들은 질서가

무너질 때만 자신의 창조물에 이신이 개입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키르디족은 이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자신들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다고 믿는 조상들에게 기도한다. 또 대지는 만물의 어머니인 여신으로서 번개와 천둥, 검은 뱀, 악어, 특정한 무생물들을 포함해 모든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키르디족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지만 극소수만이 예수를 구주로서 영접했다. 그 밖의 부족들에는 사역하는 선교사가 없다. 단 몇몇 부족에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가 있으며, 현재 키르디 언어로 전파되는 기독교 라디오 및 TV 방송은 없다. 키르디족 대부분 복음의 명백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보다 많은 사역사와 복음화 자료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무장 풀라니족, 크리스천 마을 세 곳 습격

나이제리아에서는 크리스천 주민이 대다수를 이루는 마을에서 발생한 대학살로 240여 가가와 3개 교회가 불타고, 150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나이제리아 카두나 남부지방에 위치한 카우라 지방 자치 부의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풀라니족 무장민은 지난 14일 저녁 세 마을(Ugwar Sankwai, Ungwan Gata, Chenshyi)을 습격, 복음주의 교회 한 곳과 성공회 교회 두 곳이 불타고 복음주의 교회(ECWA, 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의 줌마이 리카타리쿠 사모와 세 자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생존자들은 대학살 이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잠을 자거나 근처 친척 집으로 대피했으며,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총 소리와 함께 ‘알라는 위대하다’는 외침이 들렸다”며 “밖에 나가보니 집들이 불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숲으로 도망친 그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들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트로트CCM 가수’ 목사 장안의 화제

구자역 목사가 요즘 장안의 화제다. 지난달 21일 밤 음악전문케이블TV인 엠넷에서 ‘할레루야’라고 쓰인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출연해 요란하게 춤을 추며 트로트 가락을 불렀다. 노랫말은 이렇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랑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 있어서 하나님



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며, 근디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든디. 하나님 인간이 되어 대신 죽어 주셨다고.’

그는 “음악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니 편견 없이 봐달라”고 말했지만,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교회 밖의 비기독교인들은 “왜 TV에 나와 찬송가를 부르냐”고,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흥을 돋우고 술을 마실 때 부르는 뽕짝 가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했다.

구 목사는 ‘세계 최초 트로트 CCM(기독교현대음악) 가수’를 자처하는 그는 2009년 1집을 내놨을 때부터 이런 논란에 시달렸다. “수련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청소년들을 여 집사님들께서 부르든 듯 바라만 보시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작 문화적으로는 소외돼 있던 생각이 들어 트로트 가락의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농촌교회와 양로원, 노인대학 등을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쳤다. 교회 밖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감시대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한 그는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면서 ‘트로트 사역’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한다. “목사가 되면 좀 점잖은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수를 주시는 목사님께서 ‘더 낮은 곳을 찾아가 더 낮은 일을 하는 목사가 되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트로트 활동이 바로 그런 일이었거든요.” ‘19세기 회중찬송에 대한 연구’로 신학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마틴 루터도 당시 농민들이 부르던 노래에 독일어로 가사를 붙여 찬송을 만들었다”며 “한국인이었다면 풍년가나 쾌지나칭칭으로 찬양한 셈”이라고 말했다.

뉴욕항소법원 공립학교 내 예배금지 판결

미국 뉴욕 지역 항소법원이 3일 공립학교 내 예배를 금지시킴에 따라, 뉴욕 시의 많은 소학교교들이 다시 예배 장소를 잃게 됐다.



지난 2012년 뉴욕 시는 종교단체들이 공립학교를 예배 장소로 빌려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사실상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뉴욕 시내에서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 드리는 종교단체는 약 160개로 추산되는데, 이 중 대다수가 개신교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맨하탄뉴프론티어교회 등 한인교회도 있다.

당시 뉴욕의 대형교회인 리디머교회의 팀 켈러 목사를 비롯해 새들백교회 릭 웨넬 목사 등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2013년 1월에는 뉴욕의 다민족교회들이 연합해 1만 명이 브루클린 다리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뉴욕교회도 한인인권센터 등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방법원은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지난 3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2:1로 뉴욕 시 교육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교육국의 예배 금지는 헌법의 의무에 부합된다. 하급법원의 판결은 정교분리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수호연맹 측은 “항소법원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면서 “수정헌법 제1조는 뉴욕 시가 비어 있는 학교 건물에서 예배만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가 비어 있는 시간 동안 이 건물은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개인과 그룹에 대여될 수 있는데, 예배만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 대한 차별이고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회역시 공립학교를 대여하는 시간 동안 다른 단체와 동일한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이 결국 종교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판결은 교육국이 예배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지, 예배를 금지하라는 명령은 아니다. 따라서 결국 뉴욕 시 교육국의 태도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2014년 1월 1일 취임한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뉴욕 시 교육국의 현 정책을 변경시키고, 교회들도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인들이 세운 만주 ‘예수마을’ 찾았다

일제강점기 종교탄압을 피해 중국 만주로 이주해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씨앗을 뿌린 ‘구세동교회 사람들’을 주제로 한 논문이 나왔다. 이들이 척박한 땅에 세운 구세동교회는 일부 교회사 자료에 간략하게 언급돼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덕주 감리교신학대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만주 구세동교회 역사와 유적조사 연구보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10년대 초반 함북 길주 출신의 이종식 씨 가족과 친척 등 10여명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 화룡시 팔가자진에 정착했다. 이곳은 중국 용정시에서 서쪽으로 30km쯤 떨어져 있으며 가까이 두만강 지류인 해란강이 흐른다. 이 교수는 “일제시대 종교와 정치, 경제적 탄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교인들이 이방인들의 땅에 개척한 예수마을”이라며 “한국교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말했다.



초기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담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에는 이들이 중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여 마을 이름을 구세(救世)라고 지은 뒤 1913년 힘을 모아 예배당을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중국 화룡현지명위원회가 1984년에 낸 문헌에는 “마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기에 원래 이름은 구세동(救世洞)이다. 1962년 (지명용) 풍산으로 고쳤다”는 기록도 발견됐다. 구세동에는 차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들어 40여 가구가 함께 살게 됐다. 이들은 가난한 이웃을 한 가족처럼 도왔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성수를 지켰다고 전해진다. 1919년 9월 13일 열린 함북노회의 간서시찰보고서에는 구세동에 여학교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있다.

일제는 1920년 중국 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 작전을 벌이면서 구세동교회와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다. 이 때문에 문을 닫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명맥을 유지하던 구세동교회는 해방 이후 폐쇄됐고 주민들은 남쪽으로 돌아가는 등 흩어졌다. 현재 이곳에 사는 30여명 대부분은 조선족이다. 구세동 신앙공동체의 직계 후손은 현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곳곳에 예수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100여명이 묻혀 있는 마을 인근 묘지의 일부 비석에는 십자가 문양이나 고인의 교회 직분이 새겨져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학교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신학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7)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정권 창출-수상이 되다

카이퍼 박사가 수상 각하가 되었다. 30여 년 동안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었던 일이 전개되었다. 그의 나이 64세 되던 해인 1901년 그는 하원의원으로, 반혁명당의 총재로서 또 De Heraut지의 편집장으로서 대학교수로 있다가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수상의 자리에 오르면서 동시에 내무부장관직을 겸했다.

카이퍼는 수상의 자리에 오를 기쁨보다는 그가 한평생 꿈꾸어왔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나라를 생각했다. 그것은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삶의 전 영역에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야당으로 한평생 자유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불신앙을 공격하였던 그였지만 그가 집권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는 낙관주의의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카이퍼는 기독교 민주주의 선봉자로서, 그리고 칼빈주의자로서 더 크고 힘든 투쟁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이퍼의 의중에는 이 세상에는 어차피 중생자와 비중생자 사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Antithesis)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카이퍼가 빌헬미나(Wilhemina) 여왕에 의해서 수상으로 선포되자

야당은 야당이 되고, 야당은 여당이 되었다. 좌파 정당들은 카이퍼를 의심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카이퍼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많은 정적들을 얻게 되었다. 그런

그는 먼저 주변정리를 했다. 우선 자유대학교의 교수직 사표를 내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사직서를 받지 않고 휴직을 허락했다. 학교는 그가 수상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가 세운 학교에 관련을 갖게 하려는 배려였다. 그리고 카이퍼는 당 총재직도 내어놓고, 하원의원직도 사임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카이퍼의 의중은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신문사 편집인 자리도 다른 이에게 위임했다.

카이퍼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도 않았다. 전에

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카이퍼는 기독교 정당이던 또는 세속 정당 이던 간에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환영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카이퍼를 정치적 모사꾼이라고 비난했을 때도 카이퍼는 관용을 가지고 이런 비난에 답했다. 특별히 민주적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주의적 이념을 표방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더욱 거세게 카이퍼 수상을 비판하고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로 카이퍼 행정부는 하나의 이슈를 가진 정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이퍼 수상은 하층계급의 빈곤문제, 교육적 불공평, 외설문화문제, 여러 정

부부처의 정의로운 행정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가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의 왕권 수립이 일차적 목표였다. 그렇지만 카이퍼 내각은 신정주의적(神政主義的) 표현은 가급적 피했다. 그 대신 교회개혁정책이라던 지 주일법 개정 법안은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주일에 쉬는 것은 유익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카이퍼 수상은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웃사랑의 원리를 실천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이 말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 근거한 개념

같이 격돌할 수밖에 없었다. 카이퍼 수상은 매우 진취적이고 역사를 앞질러가는 지도자였지만,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은 카이퍼 내각이 지나치게 보수화 되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카이퍼 수상과 그의 내각은 기독교 민주주의자였다.

카이퍼는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자유' '기술교육개혁' 노동협약과 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연금법 개혁안을 내어놓고 의회와 조율하고 있었다. 카이퍼는 기독교 단체인 비기독교 단체인 간에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갖춰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카이퍼 수상의 머릿속에는 세속교육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

전통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카이퍼 내각의 또 다른 관심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즉 카이퍼 정부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세력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법안을 마련했다. 카이퍼 수상은 그 법안제출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끝을 맺곤 했다. 아울러서 카이퍼는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체계를 거부했다. 카이퍼 수상은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을 신봉하는 정치가들을 향해 "그대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마르크스인가 그리스도인가"라고 도전했다. 철학적 유물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투쟁을 그 전술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사회적 삶 자체를 오직 물질적 관심사에서만 국한시켜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에 기초한다. 성경에는 부자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약5:1-6) 가난한자에 대한 교훈도 있다(벧전2:13-19). 그러므로 성경의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과 청지기직을 강조하는 본문과 사회 정의에 필수불가결을 강조하는 본문이 성경에 함께 나타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카이퍼는 또한 개인과 국가에 대한 이중도덕개념을 강력히 거부했다. 카이퍼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 기독교 정통에 호소했다. 그는 언제나 의회 구성원들에게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적 사이의 종교적 대립을 힘 있게 주장했다.

(다음호에 계속)

신정주의는 피했지만 '이웃사랑 원리' 실천 책임 강조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적 사이 종교적 대립 강력 주장

이었다.

화란의 경우는 오랜 기독교 전통 그 자체가 정부의 시책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여왕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통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가령 여왕의 연례 왕정 연설을 할 때 그 원고는 수상이 작성한다. 그런데 여왕은 그 연설에 앞서 먼저 기도도 시작할 뿐 아니라, 의회의 모든 법안 등이 제출될 때도 먼저 한 사랍이 기도하고 했다. 또한 화란의 모든 기관들도 직접 간접 기독교적인 전통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신앙적인 입장과 세계관에 따라서 정당간의 의견이

해서는 교육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카이퍼는 하원의원 시절에 기독교사립학교법을 엄정한 투쟁 끝에 제정하고 자유대학교를 세웠던 경험이 있다.

카이퍼 정부의 또 다른 정치적 목표는 가능한 음주, 놀음, 풍기문란, 그리고 포르노문학과 같은 사회의 해악들을 저지하고 일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입법 활동은 사회적 부패척결을 위해서 입안되었다. 하지만 해결을 더 나아가서 이 법안들은 결혼, 가정, 교회 등 일반적인 권위문제에 관련하여 기독교적 국가

칼럼 음악목회 (25)

음악의 조건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태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 있어서도 누구나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듣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

니다. 특별히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즉 음악인들 중에도 성악은 목소리,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 현악기는 팔과 손가락으로, 관악기는 입과 호흡으로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체를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악은 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좋아야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연주자 자신이 듣는 만큼 만들어진다."

즉 음악을 하는 사람 자신들이 들 수 있는 만큼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휘자는 자신이 직접 소리를 내거나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주자를 이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화시켜 하모니를 만들고 여러 악기들의 소리를 조화시켜 앙상블을 만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훌륭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이론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

휘자나 연주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은 학문이기 이전에 기능을 수반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음정이나 하모니 리듬 그리고 프레임의 연결과 성악에서 가장 중요한 디션과 가사에 따른 해석과 표현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연주자의 생각과 마음과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실로 음악 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문제가 있어 못 듣는 것이 아니지요.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CCM찬양을 교회마다 하지 않는 교회까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는 가장 힘든 부분은 송팀원들의 노래가 블렌딩(Blending)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송팀원들의 음정이 서로 다르고 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중들이 찬송을 편안하게 부

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의 경우 자주 접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리를 내어 찬양하기가 너무 괴로워 차라리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가사만 찬양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불 속에서 입만 벌려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힘차게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송팀원들이 자기 마이크 가지고 음정도 맞지 않게 앰프를 통해 큰 소리로 증폭되어 부르는 소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송팀원들의 노래만이 아닙니다. 악기는 악기대로 서로 Blending만이 아니라 밸런스까지도 맞지 않아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만드실 때,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주셔서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은 소리는 스스로 무감각하게 조절하

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귀먹은 것처럼 청각이 조절되어 고통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느꼈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냄새가 잠깐 후에는 느껴지지 않도록 후각이 스스로 조절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음악에서 그래도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찬양대의 찬양은 어떠할까요? 음악을 전공한 지휘자에 의해 훈련된 찬양대의 찬양은 기대할 만해야 하는데 음악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지휘자들로 인하여 교회음악의 수준이 갈수록 저하되어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음악에 종사하는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들이 음악을 더 깊이 듣는 귀를 키워 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낼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연락처: (714)699-0210

담임목사청빙

San Francisco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분(M.Div)
2. 남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하신 분
3.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신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합니다.
4. 목회경력10년 이상이신분 (담임목사경력 3년 이상 포함)
5.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6.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제출서류

1.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2.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험, 목회비전)
4. 추천서 2부(동봉)
5. 최근 6개월 내 설교 DVD 2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웹사이트 www.ckbch.org 에서 다운받으세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Att. HONG KI HAK
문의: 청빙위원장 홍기학 안수집사(c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ckbch.org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83. 창조론의 기초(33) 생명체의 자연발생

자신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 같다.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새내기 엄마 아빠들은 당황하거나 어떻게 대답을 해주어야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질문은 아이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어른들의 질문일 뿐 아니라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발이 되었어도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을 감추려고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물의 존재와 미생물의 존재는 하늘과 땅의 차이, 즉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두 번째, 화성에 탄소, 수소, 산소, 인, 황 등이 있으므로 과거에는 미생물이 살만한 곳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에 산소의 존재는 지구에서의 생명체 발생 이론이 거짓임을 증거하고 있다. 진화론은 맨 처음 지구에는 산소가 없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만약 처음부터 산소가 있었다면 생명의 자연적인 기원은 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만약 이 산소가 생명체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미 오래 전에 유기물이 검출되었어야 한다. 화성에는 생명체란 것이 존재해본 적이 없는 곳이다.

세 번째, 큐리오시티 호가 지구에 보내온 보고들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것으로, 화성 대기 중에는 생명체 존재에 대한 강력한 물증이 될 메탄(CH4)이 없다는 사실이다. 메탄은 유기물 중에 가장 간단한 것으로 생명체가 있다면 메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메탄이 없다!”라는 보고는 “생명체가 없다!”란 말과 같은 것이다.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76년 바이킹, 2004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호를 보내 생명체의 흔적이 없다는 충분한 지식을 얻었다. 그러나 세상 과학자들은 지구 밖의 생명체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없는 것을 찾을 수는 없다.

진화론 과학자들의 화성 탐사

자(?)로 ‘반복발생설’이란 진화설을 발표한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은 무생물의 결정이 생물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는 세포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남긴 배아 발생 그림은 히틀러가 죽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이 낙태되게 하는데 정당한 근거가 되어 10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진화론자들은, 실제 사진들이 발표되어 그의 그림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1997년)에야 비로소, 교과서에서 그 그림을 삭제하였다. 그 그림이 조작되었다는 헤켈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그 그림을 사용했던 진화론자들의 헌신과 믿음은 성경을 떠난 크리스천들이 분반야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과서들에는 아직도 이 그림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발생을 부정할 실험을 했던 파스퇴르(1849-95)의 플라스크는 아직도 생명체가 자라지 않는 채 그대로 보존되어있다고 한다(위키피디아). 영양분이 풍부한 플라스크의 용액 속에 화성에서 가져온 다양한 흙들을 더하고 기다리면 미생물이 저절로 생길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끝자락은 죽음이다. 실패가 두렵고, 질병이 두렵다지만 죽음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다. 죽음은 예외도 차례도 없다. 누구나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자신은 예외일 것으로 착각케 하는 괴력을 가진 것이 죽음이다.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올리버 로지 경의 아들이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일이 있었다. 전사하기 전 보낸 편지 안에 “제 무덤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 없으니까요”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여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내가 죽거든 아무데나 묻어다오. 하나님께는 멀고 가까운 곳이 없느니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종말적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출발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앞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과 공포가 되고, 뒤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된다. 동일한 죽음을 놓고 이토록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음자리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입장과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거는 부활 신앙에 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는 부활 신앙은 겁날 게 없다.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겁날 게 없는 것은 죽어도 살고, 망해도 흥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바울이 불렀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롬 8: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라는 개선의 노래야말로 다시 사는 부활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흥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겁내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다. 초대 기독교 말씀을 외쳤던 박해자들이 놀랐던 것은 기독교도들이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맹수의 공격으로 쓰러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성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음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새아침을 내다보는 예견과 신앙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스테반이 웃을 수 있었고, 바울이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베드로가 퀴바디스 도미네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화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제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그토록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많이 그리는가? 죄와 죽음의 정복자, 승리하신 영광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많이 그리도록 하거나”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이며 개선가다.

온통 세상이 먹구름으로 뒤덮여도 구름 속에서 금방 뿔쳐나온 해를 그릴 수도 있고, 캄캄한 먹구름을 그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먹구름을 계속 그리다보면 점차 그 먹구름이 삶을 뒤덮게 된다는 것이다.

부활의 새아침 동트는 저 언덕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외치자, 예수만세, 예수 만만세! 역사 이래 죽음을 이긴 자 누구이며, 다시 살아난 자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유일성과 유일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영원한 삶을 선포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웅변한다. 예수 만세!

생명체 발견 화성탐사 헛수고.. 생명체는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 ‘반복발생설’ 주장 진화론자 헤켈의 배아발생그림 100년간 사용

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생명체의 기원을 알기 위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유명한 사업이 화성탐사다. 현재 탐사중인 로버는 큐리오시티(Curiosity)호로 2012년 8월 6일에 화성에 도착했다. 이 로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성에 미생물이 존재했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을 보고한 NASA의 보도 내용을 보면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결과들뿐이었다. 일년 동안에 7만장 이상의 사진들을 지구에 보내왔지만 생명체와는 전혀 상관없다.

첫 번째, 화성에서 발견한 사실은 생명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탐사선의 최고의 목표는 가장 간단하다고 믿는 생명체인 미생물(세균, 박테리아)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생물은 보기에만 간단하게 보일 뿐이지 전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세포는 인류가 만든 어떤 시스템보다 더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인류는 아직까지 세균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세상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발



자연발생의 믿음과 그 열매들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rovers) 큐리오시티(좌)와 낙태를 통해 히틀러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근거로 사용된 진화론자 헤켈의 조작된 그림(우, 우측 아래는 실물 사진들)

었다고 말한다. 산소가 있게 되면 모든 물질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의 부품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진화론은 원시 대기에 산소가 없었기를 소망한다. 지구의 산소는 광합성 생물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농도가 높아져 현재 대기의 21%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화성에 존재하는 산소는 생명체가 만들어낸 것일까

는 마치 ‘밀 한 움큼과 입다가 벗어놓은 더러운 옷을 함께 두면 생취가 생긴다’는 웃지 못할 자연발생설을 믿는 무식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주장은 과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처구니없는 무신론적인 믿음이 아닌가?

독일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하고 발전시킨 영향력 있는 과학

가? NASA는 2020년까지 더 성능이 좋은 큐리오시티호를 보내 과거 화성에 생물이 살았었는지를 찾아보겠다고 한다. 화성에 가서 미생물을 찾으려는 시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가련한 발버둥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다. 존재하지 않는 미생물이 발견될 수 없다.

세포의 모든 부품들이 다 만들어질 수도 없고 수십억 개의 부품들이 만들어졌다 해도 적적적소에 조립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세포도 성장하여 두 개로 분열될 뿐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의 기적으로, 종류대로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해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한다. 창조자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조자에게 돌아가 그 분 앞에 서게 된다. 그 창조자는, 그 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막8:38).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기간 2014년 4월 24일(목, 저녁) ~ 5월 8일(목, 저녁)
시간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한국 CBS-TV “세상을 이기는 지혜 - 솔로몬” 강의 (2013년 7-8월, 11-12월 방영)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삼시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생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
KWMA 운영이사
충신대학교(Th.M/Th.D.cand)
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다시보기 : www.cbs.co.kr/tv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bssolomon
■ 트위터 : www.twitter.com/cbssolomon
■ 유튜브 : www.youtube.com/cbssolomontv

2014년 월별 부흥성회 일정

| | | | | | | |
|--|---|---|--|---|--|--|
|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 Ju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7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8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0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목회서신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발에 굳은살이 생기면 활동이 매우 불편해진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의 굳은살이 신발에 닿아서 저러 오는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럽다. 옛날 어르신들은 발의 굳은살을 깎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함참 담궈서 굳은살을 불렀다가 손톱 깎기 칼을 사용하여 제거하곤 하였다. 발의 굳은살은 이렇게라도 해서 어느 정도 제거하게 되는데 마음이 굳

어진 것은 어떻게 하여야 풀어질 수 있을까? 마음이 굳어져서 고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연발하여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상태로 오래가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져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깊은 영적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손상을 받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굳어진 마음상태 그대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

희로 내 울레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자. 어디서 출발하는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 속에 두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 마음에 들어온 성령은 사람들 속에 새 마음을 주입시키신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찾아오는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공해주신다. 발의 굳은살을 제거한 후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 말초신경까지 건드려서 불쾌하게 하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면 하늘을 날듯 시원하고 기쁘고 좋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띄기 시작한다. 회피하던 대인 관계가 활

발해진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표현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6장 6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정신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 인간의 정신이나 사상은 결코 당신의 전인격을 소생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당신의 전인격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만약 굳어진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 나가기 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훈련을 소화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특별히 굳어진 마음으로 사역의 일선에서 동분서주하는 사역자들일수록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사역의 핵심은 전략이나 방법론 이전에 사역자의 열정에 달려있다. 즉 무엇을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 본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략이나 방법론은 사역자에게 하늘의 열정을 불어 넣어주는 통로가 결코 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굳어진 마음이 풀어진 상태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굳어진 마음을 더 이상 오래 방치하지 마라. 지금 당장 성령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워지기를 더욱 갈망하고 힘쓰라. 그대야 자신이 살고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은혜한인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사랑의쌀 나눔운동 결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3사랑의쌀 나눔운동 반쪽결산보고 성시화측 실무자 귀국 후 밝히기로

2013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총괄 상임회장 한기홍 목사) 결산보고에 대한 기자회견이 예정일(3월 31일) 보다 하루 늦은 4월 1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미 여러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바대로 지난 3월 19일 남가주교협 사무실에서의 열기로 했던 사랑의 쌀 나눔운동 결산보고가 남가주교협(이하 교협)과 LA 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화)간 갈등이 불거져 파행으로 끝나야 했으며, 같은 날 2013년 행사 주관처인 교협의 결산 내용과 지난 4년간 행사를 주관했던 성시화의 결산내용을 31일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4월 1일 내용은 결산은 2013년 행사에 대한 내용만이 공개됐으며, 성시화측의 자료는 실무자인 이성우 목사의 한국방문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성시화 측은 이성우 목사가 귀국하는 20일 이후 약속했던 4년간의 결산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홍 총괄상임회장은 성시화 측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된 상태라 밝혔으며, 박효우 남가주교협 회장 역시 실무자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결산내용 발표는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에 성시화 측의 결산내용 공개를 유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3년 사랑의쌀은 총수입 83,893,533달러 총지출 64,127,681달러 그리고 잔액은 19,765,852달러다. 관계자들은 나눔운동에서 남은 성금잔액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타민족들을 중심으로 나눔이 필요한 분들에게 컵라면을 구입해서 나눠주게 될 것이며, 이일을 위해 홍보를 비롯한 행정비를 제외한 전액을 타민족을 위한 나눔운동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사관계자들은 2013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집행되었다고 자평했다. 한기홍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은 “예년에 비해 이번엔 진행되었던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매우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말했으며, 박효우 목사 역시 “1달러라도 정확하게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기홍 목사는 “이번 행사가 연합을 통한 섬김이라는 교계의 아름다운 사역이었다. 2014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새로운 팀이 구성돼 나아가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느 해보다도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자체평가 속에 막을 내린 2013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교협과 성시화간 인신관계과정, 결산보고 날짜 불이행, 교협만의 결산보고 등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연합해 헌신했던 교회의 수고가 반감될 뿐 아니라 교계 이미지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박준호 기자)



오는5월3일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열리는 KFAM주최 제2회 한인정신건강 검진의날 행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조나단 강 박사가 설명하고 있다

제2회 한인정신건강 검진의 날 KFAM 주최 5월 3일 세인트 빈센트 병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오는 5월 3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LA 한인 타운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빈센트 병원 세트 홀(Seton Hall)에서 “제2회 한인정신건강 검진의 날”(Screening Your Mind for Happy Life) 행사를 개최한다.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등록, 세미나, 개인상담 순서로 진행된다. 8시30분부터 등록을 받고, 등록한 사람은 “PHQ 9”이라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는 심리테스트를 받게 된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후 심리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20여 명의 전문인들과 1대1 상담 시간을 갖게 된다. 1대1 상담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30분 정도 걸린다. 또한 상담 대기 시간에는 알츠

하이머협회에서 “치매”에 관한 한국어 강의를 제공한다. 이번 건강검진의 날에는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 Partners를 운영하고 있는 조나단 강 심리학, 교육학 박사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게 된다. 강 박사는 “어떤 사람은 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불행한가”를 묻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버린다는 것은 짐작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기대하는데 병적인 짐작이 문제다. 처음에는 누구나 작은 기대(Desire)로 시작한다. 그런데 차츰 그 기대가 요구(De-

mand)로 바뀐다. 요구란 필수사항, 꼭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실망(Disappointment), 실패감을 갖게 되고 이 실망이 거듭되면 우울증(Depression)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디렉터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제2회 건강검진의 날에는 성인, 아동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정신건강 검진과 세미나 참석 비용은 무료이며, 간단한 점심도 제공된다.

세인트 빈센트 병원은 3가와 알바라도 코너(2131 W. 3rd., Los Angeles, CA 90057)에 있으며, 주차가 필요한 경우 알바라도 방향의 게이트를 사용하면 된다.

▲등록문의: 찰스 류 (213) 235-4842/ cryu@kfamla.org, 김아림 (213) 235-4848/ akim@kfamla.org

(박준호 기자)



오는 5월1일에 열리는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행사를 위한 기자회견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5월 1일 LA, OC, 밸리, 산호세 등 일제히 실시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가 오는 5월 1일(목) 실시된다. LA 지역은 저녁 7시30분 일제연합 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자마가 주관하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남가주여성목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특별히 올해는 LA외에 오렌지카운티, 밸리, 산호세, 샌디에이고, 시애틀, 달라스 등

에서 분산돼 실시된다.

강순영 목사는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은 미 의회의 결정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 소개하며 “63번째로 열리는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에는 △자신과 미국의 죄를 위한 회개기도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동성결혼 철폐와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공립학교와 각급 교사들의 영적회복을 위한 기도 △

영화, TV(방송), 인터넷, 언론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대통령, 장관들을 위한 기도 △입법부, 사법부, 군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캘리포니아 주와 LA시를 위한 기도 △한인교회들, 2세들, 178개국에 흩어진 코리아디아스포라를 위한 기도 △고국을 위한 기도 등의 기도제목과 함께 뜨겁게 기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LA지역 기도 인도자로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데이빗 안드레이드(11.11.11 다민족기도회 대표), 정시우 목사(미 방위군 군총장), 김광수 목사(성문교회),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정장수 목사(울림복음교회), 정영희 목사(일제연합감리교회),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김철민 장로(CMF 가정사역원대표) 등이 나서며 청년사역 혹은 2세 사역자중에 한명이 함께한다.

한편 주최 측에서는 5월 첫째주간에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기도제목을 각 교회 새벽기도회와 금요예배 등에서 기도제목으로 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준호 기자)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캠퍼스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캠퍼스 개원식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캠퍼스(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LA Branch) President: Dr. John H. Kim 김희창 박사는 5일 개원식과 개강식을 가졌다.

학생 20여명으로 시작되는 LA브랜치 캠퍼스는 휴스턴에 본교(총장

Dr. Terry Curtis, www.srtc.org)를 두고 있으며 선교학박사과정과 목회학박사과정, 목회학석사과정, 신학사 과정을 미국 고등교육 기관(ABHE)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신학교다.

개원식을 가진 이 행사에는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예수

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김경진 입학처장의 인도로 진행돼 김건오 박사과정 책임자의 기도와 학사과정 책임자인 이충에 목사(삼수리교회 담임)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본 신학교 교수인 이영목사(빌라델비아교회 담임)의 특별 찬양이 있었으며 서울신학대학 구약교수인 노세영 박사가 참석했다.

개강 특강은 김희창 박사의 ‘사도 요한복음의 선교적 교회론’, 김건오 박사의 설교학 이론, 한 쿤 박사(Ph.D)의 ‘사역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과 Psychology of Ministry’가 강의됐다.

이번 학기에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30분부터 ‘율법과 복음(Law and Gospel), 목요일 저녁에는 ‘사역지도력신학’(Theology of Ministry Leadership) 이외에도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상담의 이론과 실제’(Theory & Practice of Counseling)가 강의되고 있다.

▲ 문의: (213)219-0649 (기사제공: 남부개혁신학대학원)

김명옥 신임회장, “교회 본분회복위해 연합”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정기총회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지방회장 임계주 목사)가 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에 김명옥 목사를 선출했다.

지난달 31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 총회 1부 예배는 임용수 목사 사회로 대표기도 김현석 목사, 특송 조공자 전도사, 말씀 김남수 목사, 헌금기도 정혜자 목사, 축도 이광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정기총회는 기도 임계주 목사의 기도에 이어 총무임무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임원선출 등으로 진

행됐다. 회장에는 김명옥 목사(뉴욕 예은교회 담임), 부회장 임용수 목사(좋은씨앗교회 담임) 등이 선출됐다.

이미 지방회장 3년 경력이 있는 김명옥 목사는 “교회가 본분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정진을 안 하리기 때문이다. 교회사명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고 교회본분을 다시 찾자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교회연합 정진을 살려야 한다. 작은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사역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동북부 지방회 정기총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는 길을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님의 성회(AG) 한국총회 제33회 정기총회는 4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휴스턴순복

음교회(담임 홍영선 목사)에서 열리게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병원선교회 워싱턴DC 벚꽃놀이 효도관광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올해도 봄맞이 워싱턴DC 벚꽃놀이 효도관광 행사를 갖는다. 참가대상자는 65세 이상 혼자 활동이 가능하면 되며, 50명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일시는 4월 10일(목) 오전 7시 노던블러바드 156가 한아름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관광장소는 국회의사당, 제퍼슨기념관, 링컨센터, 식물원, 한국참전용사 묘, 회비 30달러로 아침과 점심, 간식 등을 일체 제공한다.
▲문의: (914)393-1450

뉴욕장로성가단 제 10회 정기 연주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이 창단 제18주년을 맞아 제 10회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코코 장에인선교회(대표 전선덕 권사)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콘서트인 이번 연주회는 6월 8일(주) 오후 6시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찬조출연으로 Promise Treasures(어린이댄스그룹), 중국인 피아니스트 유지량과 천재 소년 첼리스트 저스틴유, 프라미스 다민족 어린이 합창단, 챔버오케스트라 등이 협연한다. 장로성가단은 이날 "신자되기 원합니다"의 9곡과 연합합창, 장로사보총창단이 2곡을 연주한다.
▲문의: (917)841-7552

뉴욕장로교회 PCA 교단가입 완료

KAPC뉴욕서노회, PCA한인동북부노회에 불법 통보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순환 목사)의 PCA 교단가입이 완료됐다. PCA 한인동북부노회(노회장 구자범 목사)는 지난 1일 뉴욕장로교회의 교단가입을 위한 임시노회를 갖고 가입을 허락했다. 이후 6시 개회예배 후 뉴욕광명교회에서 열린 노회는 노회장 구자범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뉴욕장로교회측이 노회에 보낸 교단가입 청원 편지를 읽었으며, 이순환 목사가 뉴욕장로교회의 PCA 교단 가입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이순환 목사는 "뉴욕장로교회 교단 이전에 있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와 뉴욕서노회에 폐가 됐다면 본의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90%에 가까운 교인들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4년 여간 뉴욕장로교회의 전통인 개혁주의와 장로교 정치체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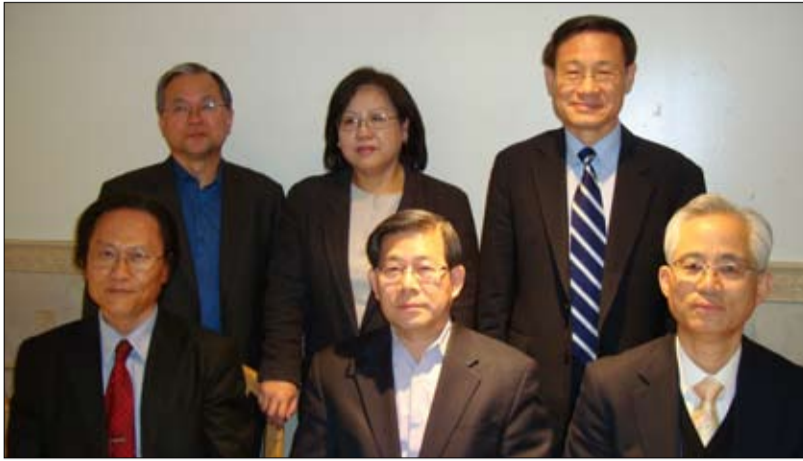
구성된 내지선교부(부장 김상태 목사)가 뉴욕장로교회 교단가입을 심의하기 위해 정회했으며, 이어진 회무에서 김상태 목사가 뉴욕장로교회의 PCA 한인동북부노회 가입결정을 보고하고 노회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한편 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김영인 목사)는 1일 오전10시 심령이가난교회에서 2차 임시노회를 열고 지난 임시노회 결의에 따라 노회에 불순종한 이순환 목사를 3월 24일자로 면직시켰으며, 뉴욕장로교회의 교단탈퇴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임원들이 더 연구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노회는 또 뉴욕장로교회가 가입하는 PCA 한인동북부노회에 공문을 보내 뉴욕장로교회의 한인동북부노회 가입을 불법임을 통보했다. 이날 뉴욕서노회는 김상근 목사를 면직시켰으며, 이만수 목사 등 7명의 목사는 제명했다.
<유원정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교협 임원진과 랄리교협 임원진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신임회장 유상열 목사



뉴욕교협 이단대책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회사성경연구원 첫날 강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뉴욕목성연 레위기 공개강좌... 박승호 목사 등 강사로

뉴욕교회사성경연구원(목성연, 미주대표 문희원 목사)이 31일부터 3일간 뉴욕어린이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레위기 공개강좌를 열었다. 이번 레위기 강좌는 1990년 한국에서 목성연을 시작한 박승호 목사(분당 생명성교회) 등 3명의 목회자들이 맡았다. 이들 외에도 미 동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목성연 대표들, 남가주지역의 문희원 목사, 관계자 등 7명이 참가했다. 박승호 목사는 첫날부터 열정적

으로 강의를 인도했으며 특히 목회자를 위한 선지자적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목사는 “바른 목회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교인의 변화’에 중점을 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내용을 다뤘으며 아울러 레위기에서 나타난 5가지 제사를 현대 목회에 적용해 강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미주목성연 대표 문희원 목사가 출애굽기를 주제로 뉴욕지역 공개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 산하 이단대책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가 지난 7일 제 2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유상열 목사(리빙스턴교회 담임)를 선임했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이날 최창섭 목사는 “본 협의회가 뉴욕교협 산하에 있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번에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 유상열 목사는 지난 1년간 총무로 재직했으며, 앞으로 남은 2년 잔여 임기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총무는 회장에 일임기로 했다. 서기는 임재홍 목사, 회계 이지용 목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창섭 목사의 인도로 기도 황영진 목사, 설교 최창섭 목사, 축도 김상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스가라서 11장 4-9절을 본문으로 “어느 국가나 단

어나 지도자의 문제가 크다. 이스라엘도 지도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3명의 목자를 끌어버렸다고 되어있다”며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한다면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불쌍히 여기며 둘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만 악한 목자는 제 배만 불린다”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 두막대기 은총과 연결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 교협산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보호받고 연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상열 목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보고를 통해 △산신교 성경세미나 △변승우 관련 뉴욕총부기도회 경계 공문 발송 등을 보고했다. 유상열 목사는 “오늘날 이단대책은 피켓시위 등의 물리적 행동보다는 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교육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른 대응법”이라며 “뉴욕일원에 난무하는 설교/세미나 CD나 각종 모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뉴욕교협 대표로 참석한 장경태 총무는 미동부이단대책협의회(회장 김동욱 뉴저지교협회장) 정기총회를 앞두고 뉴욕대표 파송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유원정 기자>

킨즈장로교회 청년부흥회에서 강사 임홍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킨즈장로교회 청년부흥회에서 강사 임홍섭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너희가 주라, 너희를 주라”

킨즈장로교회 청년부흥회, 강사 임홍섭 목사

킨즈장로교회 청년부가 주관하는 부흥집회 ‘Shall We Love?’가 임홍섭 목사(킨스웨이교회 담임)를 강사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본 교회 대성전에서 열렸다. “너희가 주라, 너희를 주라”(사61)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부흥집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가 전해졌다. 임 목사는 청년의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은 걷는 축복에 대해 강조하며 “죽기까지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임홍섭 목사는 첫날 저녁 “병어리 제자!”(요13:34-35, 마5:7), 둘째 날 “놀부 제자!”(눅15:27-32), 마지막

날 “비겁한 제자!”(삼상17:41-49)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한편 임홍섭 목사는 부흥회 기간 중인 3일 오후 5시에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성교제 및 결혼 코칭’을 주제로 특별상담도 진행했다. 임 목사는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성경적으로 이성을 사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길을 조언하기도 했다. 강사 임홍섭 목사는 노아리치프코센터 대표, 하이티 신학교 HIM 교수, 미주오엠 선교회 총무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코스타, GKYM 강사로 청년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노스캐롤라이나교협, 랄리교협 방문

노스캐롤라이나(NC)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성근 목사)가 지역 순회 마지막 사역으로 랄리교협을 방문하고 연합수련회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랄리교협은 6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열리는 연합수련회에 적극 참석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지역연합수련회에 대해 나성근 NC교협회장은 “이번 연합수련회는 모처럼 단합과 휴식과 위로를 위해 머물 비취

에서 멋지게 해보려한다”며, “참석 예상인원은 60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NC교협은 9월 한 달간 작화와 같이 웨잇빌, 랄리, 그린스보로, 샬럿에서 순회 선교부흥회를 갖는다. 랄리 지역은 9월14일 랄리제일침례교회(담임 최동갑 목사)에서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린다.
<기사제공: NC교협>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NJ, HI, and Hawaii.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New York Bible Church,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etc.



가주장로교회에서 열린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에서 순서를 맡은 이들과 KPCA서남노회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가 취임한 이성희 담임목사, 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원로로 추대된 민준기 목사

민준기 원로목사추대, 이성희 담임목사취임 가주장로교회,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

가주장로교회(담임 이성희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이 6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원로목사로 추대된 민준기 목사는 "24년 시무하다 은퇴하게 됐다. 많이 섬십하나 허전하나는 질문을 받는다. 오랫동안 정든 교회를 물려난다니까 너무도 슬프고 아쉽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생각보다 24년간의 목회여정을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한다는 마음밖에 없다. 하나

님이 맡겨주신 일은 지금까지인 줄 믿는다"고 말하며 "박수칠 때 떠나게 좋다는 말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동안 부족한 나 자신을 사랑해주신 교우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표나지 않게 소리 없이 목회를 도운 아내에게 감사한다. 가주장로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지난날보다 더 화목하고 아름답고 빠르게 성장하여 더 큰 영

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목사는 "가주장로교회 담임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큰 꿈, 비전, 계획을 주시지 않으시고 대신 바울이 즐겨 쓰던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를 주셨다"고 말하며, "종이란 단어를 묵상했더니 '노예'란 뜻이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긴다. 생애까지 주님까지 달려있다. 가주장로교회 식구들 함께 아름다운 예수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자. 많은 격려와 기도도 협력하셔서 함께 쓰임 받는 동역자 되길 소원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선영 목사(KPCA서남노회 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정찬 목사(갈보리장로교회)가 기도했으며 노진길 목사(홀리톤장로교

회, KPCA 부흥회장)이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3: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에 이어 열린 원로목사 추대식은 노회장이 개식사했으며 김승모 장로가 약력소개 및 추대사, 노회장이 기도, 윤승순 장로가 기쁜증정, 민준기 목사가 은퇴사를 했으며 목양회원들이 축가를 불렀다. 이어진 담임목사 취임식은 유청 장로가 약력소개, 노회장이 서약과 기도 그리고 선포했으며 여성중창팀이 축가를 불렀다. 이어 최명환 목사(아름다운동산교회)가 축사 및 권면을 했으며 노회장이 기쁜패를 증정했다. 이성희 목사의 취임사에 이어 라무열 목사(KPCA 전총회장)의 축사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는 조찬기도회를 12일(토) 오전 7시 남원골 추어탕 식당(0332 Beach Blvd Stanton CA 90680)에서 갖는다. 이날 설교는 최승구 목사(오렌지카운티 원로목사회 부회장)가 맡는다. <문의: (562) 833-5520, (714) 670-8004.>

VBS &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VBS &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12일(토)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19일 아리조나 새생명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실시한다. <문의: (213)382-1544, 1545>

APU 신학대학원 창립30주년 기념행사

아주사피사피대학교(APU 총장 존 웰레스 박사) 신학대학원 창립30주년 기념행사가 12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ological Education'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문의: (626)815-5463>

글로벌선교교회 설립 17주년 기념예배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교회설립 17주년 기념예배를 13일(주) 오전 11시 3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교육부와 함께 특별행사로 갖는다. <문의: (909)396-4441>

남가주사랑의교회 커리어 멘토링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커리어 멘토링 세미나가 12일(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KDC Hyssop Theatre에서 'Government(공무원)'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213)500-4367 잔디 총무>

LA사랑의교회 제6차 의료사역축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제6차 의료사역축제를 '주 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1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갖는다. 이날 행사는 혈액, B형 간염, 당뇨, 갑상선, 전립선, 골다공증, 유방암 검사 등을 하게 된다. 혈액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검사전 물을 제외한 어떠한 음식도 먹지 못한다. 주자는 5055 윌셔 블러바드 주차장(윌셔와 맨스필드 북쪽 코너)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213)999-3058 양영주 목사, (213)507-3902 이정웅 장로 joungee@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 성황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문화사역원이 주관한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콘서트가 9일 오후 8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수미,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뉴욕 NYCP 오케스트라(New York Classical Player, 지휘 김동민)가 협연했다. 이날 조수미 씨는 그가 불러 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비슈의 '저 다양한 종말새들', 영화 파리넬리의 OST로 알려진 아름다운 곡 '헨델의 '올게 하소서', 스테라우스의 '보의 소리', 애창곡인 벨포의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어요', 거친의 '섬타입', 아담의 '아!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김동진의 '가고파',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곡들을 불렀다. 이날 조수미 콘서트에는 약 2천여 명의 관객이 남가주사랑의교회 분당을 찾았으며,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의 노래 한소절 한소절을 감상했다. 한국 한국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으며, '가고파'를 부를 때는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다. 노래를 마친 조수미 씨는 청중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넬라판타지아'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앵콜곡으로 불렀다. 조수미 씨는 "앵콜곡으로 준비한 넬라판타지아의 가사는 환상의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이 있다. 그 세상은 파스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져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사랑을 나누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인교회에서 열린 건강한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학부모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된 아주사피사피대학교 교수인 박성민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학부모 세미나 하나인교회, APU 박성민 교수 강사로

하나인교회(담임 김장군 목사)가 주최한 '건강한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학부모 세미나'가 5일 저녁 7시 본 교회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민 박사(아주사피사피대학교총장, 특별사문위원)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박성민 박사는 "자녀교육이 어려운 것은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말하며, "자녀교육은 모든 가정이 똑같은 만큼 각 가정에 맞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가정의 삶을 위한 멘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론으로 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성

공을 꿈꾼다.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며 사는 것. 그래서 행복해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박 박사는 "자녀교육의 목표는 정체성을 가르쳐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열등감과 교만만이 남게 된다. 또 부모들은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든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살리되 약점은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가능한 교육목표를 세워야 하며, 10년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평안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심령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기동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미주평안교회 설립39주년 부흥성회 "한 영혼을 소중히" 주제, 강사 김기동 목사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설립39주년 기념 심령부흥성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한 영혼을 소중히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강사 김기동 목사는 '나 자신입니까? 이웃입니까?'(마22:47-4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하기 전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에 내가 앉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 있더라도 은혜로 시작하고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내 신앙에

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선교와 다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동 목사는 첫째 날 저녁집회는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마6:31-34), 둘째 날 새벽기도회는 '머뭇고 있습니까? 전진하고 있습니까?'(신8:1-4), 셋째 날 새벽기도회는 '구경꾼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까?'(눅15:4-7), 저녁집회는 '원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요21:1-6)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박준호 기자>



소프라노 조수미 콘서트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조수미,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 | | | | | | |
|--|---|--|---|--|---|--|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월-금):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부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 |
|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idrock@gmail.com |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93 1936 S. Western Ave., L.A., CA 90018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7-7777, Fax: (714)777-0772 1111 N. Brooktree St., Anaheim, CA 92801 |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www.dhkc.org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동원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양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콜센터),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목요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jcc.org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양부부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jpac.org Tel: (213)381-2535 170 Binimi Pl., Los Angeles, CA 90004 | 빛과 소망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00(영성)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영성) 영양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 브리자교회 담임목사 :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
|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후 8:00(토) 영양예배: 오후 8:00(토) www.samsungchurch.org Tel: (626)890-9800, Fax: (626)8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non@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학교: 오후 7:00(금) 주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www.mpcia.org Tel: (818)92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 조묘숙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 얼빈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
|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7:3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7:30(토)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3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chpress.com |

한기총-한교연 향한 평신도들의 외침 “조속히 통합 안할 땐 양 기관 대표 퇴진운동”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조속히 통합하지 않으면 양 기관 대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평신도단체연합회는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과 한교연 두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연합회 성명에서 "우리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분열로 인해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복음전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속히 양 기관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 기관 대표들은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전제조건 없이 만남을 가진 뒤 통합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기총과 한교연에 가입한 각 교단에 대해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고 연합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단 총회 때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양 기관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 기관 대표들은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전제조건 없이 만남을 가진 뒤 통합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기총과 한교연에 가입한 각 교단에 대해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고 연합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단 총회 때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회 대표로 어느 단체를 부를지 난감하다고 한다"며 "통합되지 않으면 평신도 단체들은 양 기관에 모두 분담금을 내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영한 장로는 "한기총과 한교연으로 분리된 연합기관이 하루빨리 하나로 통합돼 명실상부한 기독교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평신도단체연합회는 예상 통합과 합동, 기감, 기하성 등 17개 교단 20만여 장로들의 모임인 한국장로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박경진 장로)와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형원 장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목회자 반발에 '종교인 소득' 신설 자발적 신고·납부 안할 땐 가산세

기획재정부가 7일 마련한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에 대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비교적 많이 반영했다. 목회자들의 사례금을 강연료, 인세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리라 목회자들이 반발하자 '종교인 소득' 세목을 신설한 것이나 종교단체(교회 등)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 삭제는 그동안 한국교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기재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원천징수 규정이 사라지면 교회가 목회자들의 세금을 미리 때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됨에 따라 교회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기재부가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80% 공제하려던 입장에 서 벗어나 소득에 따라 공제비율을 차등하겠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목회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세금신고 납부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에 대비, 최대한 간편

한국교회-목회자갱신 '회초리 기도대성회' 방지일 목사 등 100여명 원로목사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최복규 목사)와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총재 강지원 변호사)는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 기도대성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성회의 주제는 '나부터 회개'이다. 특히 한국교회 회복은 목회자들의 자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도운동의 본거지인 삼각산에서 마련한 회초리를 들고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때리는 참회 의식을 갖는다. 한국교회의 분열과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문과 취지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번 성회는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100여명의 원로 목사가들이 교회갱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104세로 한국교회의 산 증인인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 목사가 준비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회개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반 성회는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100여명의 원로 목사가들이 교회갱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104세로 한국교회의 산 증인인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 목사가 준비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회개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반 성회는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100여명의 원로 목사가들이 교회갱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104세로 한국교회의 산 증인인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 목사가 준비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회개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 제작 '성교육 표준안' 초안 배포 교계단체 "동성애 옹호 우려" 주장

교육부가 제작 중인 '학교 급별 성교육 국가수준 표준안(성교육 표준안) 초안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다수 기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일 교계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을 하기 위해 '성교육 표준안'을 제작 중이다. 일선 교사들에게 초안을 배포해 지난달 23일까

지 의견을 수렴했다. 문제의 초안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편향적 논리들이 소개돼 있다. 중학교 과정 31쪽에는 '결혼의 의미와 다양한 가족관계의 이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양한 가족관계'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양성평등' 외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 '다양한 성적 지향'이 갖는 의미와 사회적 인

식변화를 바르게 인식하자' 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등의 기술을 통해 동성애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했다.

김원평 부산대 교수는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예외적인 성을 가르치면 잘못된 성 유희과 문화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대로 교육이 이뤄진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회도 최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성교육표준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추게 해 성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정보를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편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처음으로 성교육표준안을 제작, 교육현장에 배포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 정책연구원은 현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초고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을 확정 한 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동성애 처벌 '군 형법' 폐지 반대 제23회 대한민국 군종목사 수련회

한국군종목사단(단장 이성일 대령)이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고있는 제23회 대한민국 군종목사 수련회에서 동성애 관련 군형법 조항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군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 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무리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를 인정할 경우 군내 내성병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양성애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려 군 전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독교 신앙을 품소 체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찾아가는 군종활동'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사순절 기간동안 군종목사들이 급양부대와 헌병대, 적외부대 등 24시간 근무하는 곳을 찾아 격려하기로 했다.

또, 기독교 장병들이 앞장서 병영 내 약속과 관행을 타파하자는 선한사마리아운동 역시 일선 대대급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성일 한국군종목사단장은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애 문제는 우리사회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일 단장은 이어 "평화를 유지하는 건강한 국군 양성을 위해서는 양성애에 대한 가치관 즉, 현재까지 헌법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교단으로 연합하자는 '한교단 다체제' 선언을 한 이후 점차 연합의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랑의온차 사업 등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기독교교단 선교연합회(이사장 곡선희 목사)에 대해서는 가장 군선교발전협의회에 적극 참가해 군종목사단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군선교발전협의회 참여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군선교발전협의회 구성안에는 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 군종목사 파송교단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하기로 했으나 군종목사 파송교단에서 2명 더 늘린 5명의 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후에 수련회에서 다양한 영성훈련의 시간을 통해 야전의 위로자로서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장로교단 '한교단 다체제' 속도낸다 배포 한장총, 9월 총회직후 창립총회 추진

한국장로교회총연합회(유만석 대표회장)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장로교단, 이른바 '한교단 다체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장로교회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기준에 한교단다체제에 참여의사를 밝힌 교단들과 함께 한교단 다체제회의를 갖고, 빠르게 오는 9월 총회 직후인 10월이나 11월 중에 창립총회를 연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교단 다체제 참여의

사를 밝힌 교단은 예장통합(김동업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백석(장종현 총회장), 예장한영(한영훈 총회장) 측 등 3개 교단. 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9월 총회 때까지 '한교단 다체제'에 적어도 7개 교단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중윤 목사(한교단다체제 추진위원장)는 "아무래도 7개 교단은 들어와야 한교단이라고 말할 때 아주 권위가 있고 값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3개 교단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장로교단 중에서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예장통합(안명환 총회장)과 고신(주준태 총회장), 합신(이주형 총회장), 대신총회(최순영 총회장) 등을 우선적으로 '한교단 다체제' 안으로 편입시키자는 데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넓혀 가기로 했다.

이중윤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는 "예장통합과 합동 등 4개 교단이 처음부터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특별히 자생 장로교단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백석이라든가 대신 교단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총회에서는 한국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도 보여줄 계획이다.

예장통합과 백석, 한영총회 등 '한교단 다체제' 헌법 수용 결의를 한 3개 교단은 오는 9월 총회에서 개최예배와 성찬식을 함께 진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장총이 9월 총회 한 달 전에 총회 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로교단들이 지난 2012년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00주년 대회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되 하나의 교단으로 연합하자는 '한교단 다체제' 선언을 한 이후 점차 연합의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 | | | | | | |
|--|--|---|---|---|--|---|
| <p>벌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 <p>벨엔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영양: 2월 10일, (8월) 2월 11일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706 Wilmer Rd., Horsham, PA 01748</p> |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남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88(렉스켄들)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
|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8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p> |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별: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cc.org</p> | | | | |
| <p>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 <p>엘파소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별(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422-0288, Fax: (215)42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남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북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p> <p>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
|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만)</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남부예배: 오전 9:30 주일북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 <p>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www.kpcpac.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선교의 창 (5)

계약적 모델을 통한 세계선교 (World Mission through Model of Contract)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오늘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세계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의외로 적다. 1988년 이래 격년으로 치러지는 선교한국이나, 여타 크고 작은 영성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헌신을 했다. 그러나 정작 선교사로 나간 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선교구조나 후원 아니면 선교신학의 부재인가? 복합적이다.

“선교사”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일생 동안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다. 위대한 선진들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적 결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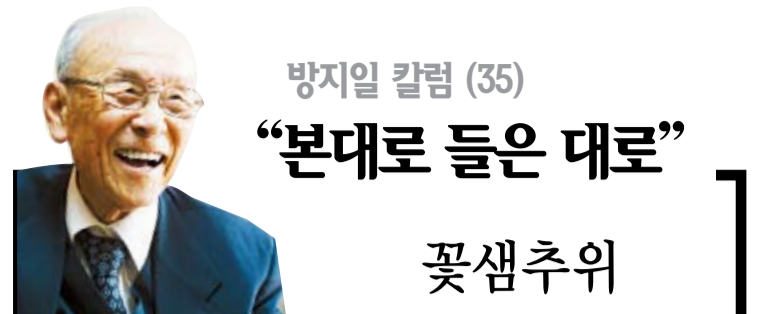
할 때 아군이 승하고 그의 기도가 쇠(衰)할 때 아군이 쇠했다. 이때의 승패는 전면에 있는 여호수아보다 후면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 이처럼 기도사역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

기도는 그리스천에게 최고의 무기이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자신이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로 선교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전후적으로 임해야 한다. 다니엘은 때와 장소를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다. 그는 소원하는 바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다. 선교적 기도는 다니엘처럼 기한을

금이라야 한다. 기도 없는 헌금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둘째는 정한 때에 정한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다. 형편에 따라 송금한 액수와 날 자가 들쭉날쭉한 것은 선교사를 피곤하게 한다. 어쩌다 만 날 때 금일봉을 주는 것보다 비유를 쪼개는 물방울처럼 지속적인 헌금이 가치가 있다. 셋째는 팀(Term)을 정해 계약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피차간에 선한 유익을 준다. 개인이나 교회도 상황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속에서 무자정 마르고 닳도록 선교헌금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안에서 일정기간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때

아니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건강한 대안이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컫는 데이빗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처럼 처음부터 평생 선교사로 결단하라고 다그치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지원하겠는가? 대나무는 매듭의 연속이다. 선교사역도 대나무처럼 매듭이 매듭 안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한팀, 두팀 이렇게 계약가운데 사역이 지속될 때 마음도 가볍고 더 집중할 수 있다. 매듭이 없는 선교사역은 자기를 돌아보기 어려우며 심신이 병들어 중국에는 사역을 내려놓기 쉽다.

한국선교! 또 하나의 도약을 위



방지일 칼럼 (35) “본대로 들은 대로” 꽃샘추위

꽃봉우리들이 불어올라 오는 것이 눈에 보여 꽃이 피는구나 나 기대하고 있는 때에 그 추위는 소매깃으로 바람이 착 들어 오며 체온에 당하는 체감온도는 대단하다. 이를 꽃샘추위라고 해마다 부르고 있다. 꽃피는 것을 겨울은 그 지체가 싫어서 그 봉우리가 커가는 것을 생각해 한면 당해 보지 않는 듯 꽃 필 무렵 그렇게 추워지는 듯 샘을 낸다. 시기한다. 라헬이 그 언니 레이를 시샘했다하야 새삼의 표준이 되는 듯 했다. 언니는 생산하는데 자신은 못함! 그렇게 시샘이 난 것이었다. 남편을 독차지하고도 그 샘이 극에 도달하여 불평하다가 아람에게 책망도 받았다.

사람에게 샘이 있다. 샘이 있어 경쟁적으로 이기려는 상대를 놀려야 시원해하는 그 심정이 거의 정상적인 듯 하다. 학창시절 때 그 시샘함이 거의 뚜렷하게 대화 속에도 나타난다. “너 밤새 공부한다더러” “아니야 난 잠에 못이겨 일찍부터 잤어” 시험 치를 때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 상대에게 거는 시샘이 있다. 좋은 의미로서 서로 이 같은 경쟁심의 노력이 더 크다함은 적극적으론 덕이 된다. 여러 아이들을 기를 때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어버이들도 있다. 그러기에 외톨이 때는 먹지 않는다고 어버이들은 아우성이다. 여럿 되면 스펀크 내기나 하는 듯 잘 먹는다. 돼지새끼들도 어떤 경우에는 어미의 젖 수보다 새끼가 많을 때 젖사육을 한다는 것이다. 한 놈은 젖을 차지하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다. 때어서 따로 길러야 한다고 한다. 거기다 시샘이 날 때 서로 싸우며 젖을 차지한다. 생존경쟁의 한 몫이라고도 할 것이다.

밝아올 때 어둠이 더해진다. 이도 지나보는 일이기도 하다. 밝은 것은 어두움이 시샘이랄까 물러갈 수밖에 없는 동트는 때라 한번 더 어둠이 되고야 물러간다는 말인가?

상대를 나만 못하게 하려는, 못하기를 바라는, 아니 나보다 나은 것을 시샘함이라 하겠다. 신앙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심에 위배된다. 나는 순해를 보면서 상대로 이익을 보게, 나는 불편하면서도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희생의 본이시다.

상대가 몸이 약한데 한 총격을 줌으로 그의 건강을 자극시키기 위한, 그로 내 건강을 시샘 나게 하여 그 총격으로 그로 건강에 힘쓰게 하면 이는 좋은 면이다. 사람에게 있는 이 샘나게 하는 심투 시기를 좋은 면 되게 한다던 이는 한 단계 높은 희생봉사일 것이기도 하다.

옛날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초겨울에 혼자 산책을 나갔는지 어두운 무렵에 호숫가에 갔는데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 살려달라는 그 애타는 부르짖음에 피스틀을 꺼내어 아예 쏘아 죽이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가 격분하여 이런 인간이 어디 있는가 하고 죽을 악을 써서 기어히 살아나서는 뭐 이런 독한 사람도 있는가 나 죽고 나죽자고 달라붙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내가 들어가 구하려 했으면 돌아 다 죽었을 것이다. 이 방법이 내 방법이었고 실복시켰다는 말이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른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병원에 같이 입원하여 다 중태로 거의 같은 운명을 당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었다. 거기 시샘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인지 나머지 한 사람은 회생한 예도 때로 듣는다. 이런 시샘은 있을만한 시샘이기도 하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내 동포들이 시샘 나서 믿게 되기를 바래서라 함도 들어본다. “이는 곧 내 팔육을 아꾸죽 시키게 하여 저의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롬11:14). 이런 심리작용을 일으켜서라도 몇몇을 구원코저 하는 심정이었다. 교육상에 때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심리로 그의 진취성을 높여주려는데 있다. 그 효과를 봄기도 하다. 금년도 꽃이 지금 괴려함에 그 시샘추위를 당하면서 한 느낌을 적어본다.

(1999년, 2권)

어떻게 하면 붓물이 터지듯 선교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선교를 향한 계약적 모델이 한 대안이다.

계약적 선교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사역을 기약할 수 있는 건강한 방안이다.

했다 할지라도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람들 중 어떤 이는 평생을 죄스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도 있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잠재적 선교인력과 자원을 비해 표출되는 선교사역은 너무나 미미하다.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붓물이 터지듯 선교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선교를 향한 계약적 모델이 한 대안이다. 이는 오랜 선교역사를 가진 서구 선교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사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안을 한국적 특성에 맞게 소화하여 보다 널리 선용하면 좋겠다.

기도를 통한 세계선교

선교의 주제는 성령이다. 이에 우리는 기도로 선교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 없는 선교는 주의 일이 아니다. 선교를 향한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는 남을 돕는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선교이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의 뒷받침 속에 중보기도로 사역했다. 이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가 승(昇)

정하고 생명을 건 탄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때가 차면 평가를 한 후 다시 재 서원을 하면 된다. 선교는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적 기도사역은 인간의 연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헌금을 통한 세계선교

오늘날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회 후원금은 그 방법적 이해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제정이 어려울 때마다 외부로 나가는 선교헌금부터 끊는다. 또한 담임목사가 바뀌면 인간관계와 자기 목회철학에 따라 후원 선교사도 교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선교사는 파리목숨이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설명 하나 없이 후원금이 중단되면 선교사는 마음이 무겁다. 비단 재정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영적 비애를 느끼기 때문이다. 후원교회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선교헌금을 잘할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가 수반된 헌

가 차면 내규에 따라 후원을 연장하면 되고 만일 그것이 불가할 경우 정중히 양해를 구하면 된다. 기간을 정한 계약적 헌금은 서로를 편하게 하며 시험 들지 않게 한다.

헌신을 통한 세계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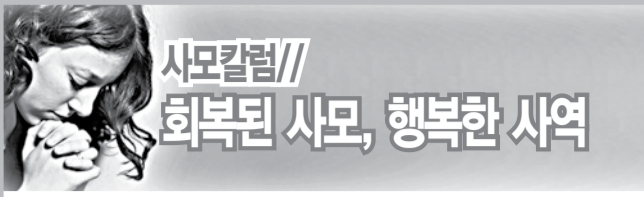
근세 선교역사를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뼈를 묻었다. 당시 여러 선교사들은 일사각오(一死蕩悟)의 정신으로 헌신을 했다. 하지만 당시는 교통과 통신의 미 발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도 있었다. 만일 그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어떠할까? 뼈를 묻는다는 정신은 고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략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바울은 한 곳에서 뼈를 묻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속히 이양하고 새로운 개척지로 나아갔다.

현대는 팀워크로 하되 사역지에서 선교를 가능한 빨리 위임하고 떠나주는 것이 요구된다. 보통 서구 선교기관은 4년 텀으로 계약을 한다. 그들은 매 안식년마다 평가를 한 후 다음 텀을 재계약한다. 계약적 선교는 믿음이 없는 행위가

해서는 기간을 정한 계약적 선교를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세계선교를 향한 기도사역이든 헌금이나 헌신이든 무자정 시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간을 정한 계약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 달은 하루가 쌓여서 되고 일년은 한달이 쌓여서 된다.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단기 선교로 출발하여 장기 선교로 한팀 두팀이 이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처음부터 무리한 결정을 하면 자칫 울부짖으며 파송하는 선교부나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근시 거리도 잘못 보는데 원시 거리까지 담보할 필요가 있었는가? 좋은 계약은 이어지기 마련이다. 잘못된 계약은 끝이 난다. 이에 선교를 향한 계약적 접근은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적 병목현상을 돌파할 수 한 전략이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 교회에 토착화될 때 세계선교가 더욱 활성화되며 나아가 선교사와 후원교회 그리고 선교본부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엮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 | | | | | | |
|---|--|---|--|--|---|--|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931-9479, HP: (02)436-5770 군포시 금정동 870-15호 |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 | |
|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15호/16호)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시작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4:30 (물어본 후 시작)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2)942-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주일4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화곡동 520 (158-808) |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www.seongsil.or.kr Tel: (02)2-999-999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40-1(142-073) |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구구 목3동 713-26호 |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
|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2(1404-270) |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2)942-6881, Fax: (02)942-688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의왕동 419-2 | 신강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02)2-48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새벽: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대호동 17길 29(강일동) |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02)2-786-6579, 새벽: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제2동 146-7 |
|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앙로 415 www.yangok.org |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03-838) |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동 448-23 | 청주주요신학교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 밴쿠버발라미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성경 강좌: 오후 7:00 금요 기도회: 오후 8:00(월-토) 금요 기도회: 새벽 4:30, 6:30(일) 금요 기도회: 오후 7:30 금요 기도회: 새벽 7:30 www.pccov.org Tel: (604)564-5780, Fax: (604)56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 성경 강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주일4부예배: 오후 7:40 수요예배: 오후 7:40 금요기도회: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스페니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사역가꾸기 (4)

인도사역에서 세 번째 강의는 '사역가꾸기'였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를 것이라"(사60:22).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에게는 절실한 구절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사역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명 그리고 인격까지도 다 갖추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사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30년이런 긴 세월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수 없습니다. 그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on time에 붙어 왔나?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하고 싶다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사역도 되는 것이 없을 때 즐겨 부르던 복음송이 생각납니다.

"어둔 밤 지나면 새날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인생의 괴롭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 오네/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되시니/심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역의 길이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이 복음송을 부르노라면 막내딸은 엄마에게 달려와 이렇게 질문하곤 하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엔 언제 새날이 올거야?" 그 때 막내딸아이의 나이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 차렸는지 이런 질문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응, 이제 곧 새날 올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새벽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아픔이 짙은 것처럼 사역의 길이 열리기 바로 직전의 난관은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때 환한 빛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탄식하며 부르짖던 기도의 내용을 다 듣고 기억해두신 하나님은 이제 on time에 붙어 들어오시고 나니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전 영국에서 사모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30년 전에 한국에서 고인(남편)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헤어져 지 30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영역

가 떨어진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주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하게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 학교에는 이해과목이 없습니다. 단지 순종과목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할 때 이해가 되고 순종할 때 사역의 길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탈 때마다 볼 수 있는 글자는 "on time"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발을 굴러도 on time에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만에 영국에서 뜻밖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영국에서 묵회하시면서 인도 선교를 함께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 분을 통해 인도 사역을 활짝 열기 시작하시더니, 동시에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어 오던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약속하신 것은 해로울 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디 이루어지는 일일수록 감격과 감동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인 것입니다. 이 감격을 함께 나누며 사역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사모들의 모습을 소개해 봅니다.

"주께서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니 조금만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모님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나도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든 고난과 헌신과 수고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어려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삶의 여유가 생겼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감사드립니다"(U사모).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이다(시11:7)

시편1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핍박을 받을 때 지는 시입니다. 다윗은 위협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니 항상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감사해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7절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이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보십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침시키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가지입니다.

화 여호와여 도우소서(시12:1-2)

시편12편은 경건한 성도가 부패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쓴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상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짧은 한마디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끊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

리가 사는 사회가 위태롭게 되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끊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란 말의 뜻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자"란 뜻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더욱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수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모습(1)(시12:1-4)

우리가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욱더 신뢰할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경건한 자가 하나 둘씩 사라져가니 거짓말 하는 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아첨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소서! 경건한 성도는 늘 남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합니다. 알랑거리고 아첨하지 않습니다. 3.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성도는 늘 믿음의 말을 합니다. 4. 자랑하는 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 경건하고 충실한 자의 모습(2)(시12:5-8)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타락을 이기고 경건하게 사는 길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영적으로 잠잠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에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고 오류가 없고 정확무오하십니다. "흠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하셨는데, 일곱은 기록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특별히 7절에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시13:1-3)

시편1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뢰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시련가운데서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시입니다. 오늘 신실한 성도들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시에는 "어느 때까지이니까?"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지지 않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것 같을 때 이 감정을 막기 힘들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라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간절함은 주님을 깊이 만난 성도들만이 외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성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 한분만을 의뢰해 주님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응답 받는 성도가 많이 생기고, 간증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게 됩니다. 진정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후대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토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시13:1-6)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본문에 귀중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1.경건한 성도는 심한 영적 탄식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을 때 가장 괴롭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역설적인 진리로 우

리에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고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장래에 더욱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최고의 설교가요 목회자인 스펀전 목사님은 사역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역에 전보다 큰 축복을 예비하실 때마다 나에게 먼저 우물이 온다."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형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바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e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 |
|----------------|------------------------|
| 1 교회(기관) 이름 | 한글: _____ 영문: _____ |
| 2 교회(기관) 주소 | _____ |
| 3 교회전화 & 팩스 | Tel.() Fax() |
|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 한글: _____ 영문: _____ |
| 5 사택 주소 | _____ |
| 6 사택전화 & 팩스 | Tel.() Fax() |
| 7 E-mail Add. | @ |
| 8 Web Add. | http:// |
| 9 소속교단(정확하게) | _____ |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지역사회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

주 예수교회, 6월 12-14일 제 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제 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선교적 건강한 교회'가 오는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에서 개최된다.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가 주최하고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관하며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후원하는 본 세

주 강사로는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 선교학 교수,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가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를 강의하게 되며, 김중국 선교사(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회의 회 공동의장)가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배현찬 목사(주 예수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가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회 선교, 인종간 화해 사역, 문화축제 등 한인교회로서는 매우 모범적 방식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사역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장로교(PCUSA)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에는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해 한인이민교회 로드맵을 제시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었고 선교적 교회의 세 가지 핵심 요인은 성서전승, 문화수용, 지역사회"라고 요약했다.

또한 "과거 지리적 개념이 강한 해외선교의 관점에서 보는 선교관에 있어 교회가 처한 문화상황과 지역사회의 중심을 둔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이라며, "전통적인 선교사역

선교적 정체성 강조하는 교회 본질 회복운동 선교적교회 핵심: 성서전승·문화수용·지역사회

미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를 걸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주 예수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노숙자숙박 사역 및 식사 사역, 빈민촌 주택보수, 산골빈민촌 사역, 인종화합 합창제, 한국어 식문화 축제 등 지역사회 선교현장을 참여하고 견학을 통해 참가자들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목회 실제", 노승환 장로(주 예수교회 담임, 심장내과외과)가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주 예수교회는 지역사회와 미국 문화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하는 교회다. 특히 담임 배현찬 목사는 교회 존재 목적을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다문화 선교, 사

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4년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를 봉헌한 주 예수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의 모델을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들에게 제시할 전망이다.

배현찬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처한 문화 속에서 각자가 선

이나 프로그램인 선교행위(Doing Mission)보다 교회존재 자체가 선교로써 존재하는(Being Mission) 선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회 본질 회복운동"이라고 말했다.

배 목사는 “존 스토트가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침투하되 동화되지 않는 특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선교적 교회

는 시대적인 선교운동이며 어느 지역과 사회를 막론하고 점점 다인종, 다문화 되어가는 지구촌 선교현장에 제기되는 새로운 선교 주제일 뿐 아니라, 지구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당면과제"라고 말하며 금번 세미나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한인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30명으로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등록비는 교세 및 속식을 포함해 100달러. 단 선교사는 등록비가 없다. 등록처는 주 예수교회로 전화(804-560-7500/7509)나 홈페이지 www.jolc.prg로 등록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014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역구분

(주후 2014년 4월 20일 주일 새벽 6시)

교협준비위원장: 박맹준 목사(뉴욕신일교회) 347-782-2171

교협총무 장경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 917-825-5204

| 지역 | 장소 | 지역준비위원장 | 설교자 |
|---------------|---|-----------------------------------|-------------|
| 1 Corona | 뉴욕동양계일교회(반상석 목사) : (516) 316-3833 | 조원대 목사(뉴욕우리교회) : (718) 309-6980 | 설교자: 김성석 목사 |
| | 뉴욕동양계일교회, 뉴욕한빛교회, 뉴욕영락교회, 뉴욕한길장로교회, 뉴욕그리스도의교회, 뉴욕평강교회, 뉴욕푸른초장교회, 뉴욕우리교회 | | |
| 2 Woodside 1 | 뉴욕어린이양교회(김수태 목사) : (646) 623-4551 | 송일권 목사(뉴욕어린이교회) : (917) 385-5021 | 설교자: 김일기 목사 |
| | 뉴욕어린이양교회, 큐가든성교회, 뉴욕베데스다교회, 뉴욕양성교회, 뉴욕주요양교회, 뉴욕교회, 정금같은교회, 뉴욕영생교회, 퀸즈영광교회 | | |
| 3 Woodside 2 |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 (718) 639-3021 |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 (718) 639-3021 | 설교자: 김승희 목사 |
| | 뉴욕초대교회, 퀸즈산성교회, 뉴욕나사렛교회, 뉴욕필그림교회, 새문침례교회, 뉴욕한성교회, 뉴욕남교회, 뉴욕에덴동산장로교회, 주님의포도원교회, 뉴욕제일장로교회 | | |
| 4 Sunnyside | 뉴욕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 : (917) 559-8877 |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 (917) 559-8877 | 설교자: 송병기 목사 |
| |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중앙교회, 아스트리아한인교회, 뉴욕장로교회, 뉴욕한인중앙교회, 뉴욕빌립보장로교회, 예사랑교회, 뉴욕서광교회 | | |
| 5 Elmhurst | 퀸즈한인교회(이규섭 목사) : (718) 672-1150 | 김상태 목사(주님의교회) : (646) 642-3533 | 설교자: 이규섭 목사 |
| | 뉴욕동부교회, 뉴욕성산루터교회, 세계영성교회, 퀸즈감리교회, 퀸즈한인교회, 주천양만교회, 뉴욕성신교회, 뉴욕영매교회, 지안교회 | | |
| 6 Flushing 1 |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 (646) 335-6269 | 김기호 목사(뉴욕중앙장로교회) : (646) 763-4211 | 설교자: 양승호 목사 |
| | 뉴욕만나교회, 뉴욕복된교회, 뉴욕순복음연합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비전교회, 퀸즈동부교회, 뉴욕새살교회, 퀸즈성결교회, 뉴욕에버그린교회, 뉴욕주은혜장로교회 | | |
| 7 Flushing 2 | 뉴욕총신교회(김해택 목사) : (732) 684-0222 | 이수영 목사(뉴욕동대교회) : (917) 657-1768 | 설교자: 이만호 목사 |
| | 뉴욕분향교회, 뉴욕새순교회, 뉴욕소망교회, 뉴욕연합장로교회, 뉴욕순복음제일교회, 뉴욕총신장로교회, 뉴욕한인장로교회, 뉴욕침례교회, 뉴욕등대교회, 뉴욕서부교회, 뉴욕온유한교회, 한동감리교회, 뉴욕동서교회, 순복음안디옥교회, 새생명장로교회, 햇불선교회 | | |
| 8 Flushing 3 |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 : (347) 749-4232 | 박맹준 목사(뉴욕신일교회) : (347) 782-2171 | 설교자: 문석호 목사 |
| | 미주사랑의교회, 변영성결교회, 퀸즈순복음교회, 새소망장로교회, 성기교회, 후리산장로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욕신일교회, 조은교회, 뉴욕승리교회, 뉴욕예본교회, 뉴욕은혜장로교회, 뉴욕매시너교회, 오메가교회 | | |
| 9 Flushing 4 | 행복한 교회(이성현 목사) : (347) 224-9595 | 이지용 목사(뉴욕게시마교회) : (917) 693-2763 | 설교자: 전희수 목사 |
| | 뉴욕게시마교회, 뉴욕선교회, 주님의교회, 주님을알리는교회, 퀸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뉴욕한인등대교회, 뉴욕오순절성결교회, 뉴욕행복한교회, 빛과소금교회, 기쁨과영광교회, 후리산나사렛교회, 뉴욕수문당교회, 순복음중앙교회, 벨리츠침례인교회, 리빙스톤교회 | | |
| 10 Flushing 5 | 한인구세군교회(이상정 사관) : (516) 485-3235 | 김영환 목사(효성교회) : (914) 393-1450 | 설교자: 황영일 목사 |
| | 뉴욕사랑선교회, 뉴욕계명장로교회, 뉴욕광명장로교회, 청암교회, 퀸즈침례교회, 하국교회, 든든한교회, 뉴욕새날교회, 하예성교회, 뉴욕효성교회, 올레이션미션교회, 미래비전교회, 가스펠장로교회, 구세군한인교회, 뉴욕갈릴리교회 | | |
| 11 Flushing 6 | 프라이스교회(김남수 목사) : (718) 321-7800 | 김연수 목사(뉴욕주교교회) : (917) 770-5080 | 설교자: 고석희 목사 |
| | 뉴욕나눔장로교회, 뉴욕새하교회, 뉴욕서울장로교회, 프라이스교회, 지구촌성교회, 뉴욕평안장로교회, 뉴욕예은교회, 뉴욕제자교회, 뉴욕복음성교회, 뉴욕주은교회, 뉴욕비전교회, 뉴욕순복음갈보리교회, 뉴욕즐거움교회 | | |
| 12 Flushing 7 | 대한교회(김전목사) : (516) 984-8888 | 정대영 목사(퀸즈동부교회) : (718) 757-2379 | 설교자: 김 전 목사 |
| | 뉴욕대한장로교회, 뉴욕루터교회, 메시아장로교회, 영림교회, 큰샘교회, 뉴욕새희망교회, 후리산제일교회, 퀸즈제일교회, 퀸즈중앙감리교회, 플라상한인교회, 한누리교회 | | |

| 지역 | 장소 | 지역준비위원장 | 설교자 |
|--------------------|--|------------------------------------|-----------------------|
| 13 College Point | 뉴욕수정성결교회(황영송 목사) : (917) 541-9961 | 임용수 목사(좋은씨앗교회) : (917) 617-0170 | 설교자: 문중은 목사 |
| | 뉴욕수정성결교회, 뉴욕선교회, 뉴욕동원장로교회, 뉴욕아멘교회, 뉴욕주심교회, 뉴욕복음성교회, 좋은씨앗교회, 양무리장로교회, 예수사랑장로교회, 새영장로교회, 뉴욕예말장로교회 | | |
| 14 Fresh Meadows | 퀸즈연합장로교회(김형규 목사) : (718) 357-1004 |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 : (646) 287-7169 | 설교자: 최창섭 목사 |
| | 뉴욕늘기쁜교회, 뉴욕동인교회, 뉴욕벨렐교회, 뉴욕소망교회, 한길선교회, 뉴욕소망성결교회, 뉴욕시온성교회, 임마누엘성교회, 주신장로교회, 퀸즈연합장로교회, 뉴욕천성장로교회, 예뻐예쁜성교회, 뉴욕성물장로교회, 부활의 새벽교회 | | |
| 15 Bayside 1 |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 : (718) 357-3355 | 김천수 목사(뉴욕방주교회) : (718) 928-8100 | 설교자: 김종덕 목사 |
| | 뉴욕신광교회, 뉴욕성화교회, 뉴욕영광장로교회, 뉴욕방주교회, 하은교회, 뉴욕참교회, 뉴욕순복음중앙교회, 누기교회, 뉴욕한인교회, 실로암장로교회, 뉴욕우리의교회, 리바이블교회 | | |
| 16 Bayside 2 | 선한목자교회(황영진 목사) : (917) 349-5631 | 이종명 목사(강성장로교회) : (718) 354-6609 | 설교자: 이종명 목사 |
| | 에버그린장로교회, 뉴욕강성장로교회, 퀸즈중앙장로교회, 새가나안교회, 뉴욕성원장로교회, 사랑의동산교회, 뉴욕제일교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새천년교회, 주사랑장로교회, 뉴욕할렐루야교회, 뉴욕그리성장로교회, 선한목자교회, 뉴욕시온산장로교회, 뉴욕사랑의교회, 뉴욕생령장로교회, 뉴욕참사랑교회 | | |
| 17 Little Neck | 은혜교회(이승재 목사) : (718) 428-1447 | 양민서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 (917) 326-1723 | 설교자: 이승재 목사 |
| | 은혜교회, 뉴욕은총장로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그레이트교회, 뉴욕하나사랑교회, 그리스도영교회, 예수생명교회, 생명교회, 뉴욕민계교회, 뉴욕불기동교회, 뉴욕영원교회, 뉴욕인도교회, 뉴욕화광교회, 뉴욕주니교회, 예수영교회 | | |
| 18 웨체스터 | 뉴욕한인제일교회(박효성 목사) : (914) 332-7640 | 노성보 목사(웨체스터장로교회) : (347) 326-5530 | 설교자: 김홍선 목사 |
| | 웨체스터중앙교회, 양무리장로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은혜와사랑교회, 뉴욕시메루살렘교회, 웨체스터연합교회, 웨체스터제일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뉴욕능감교회, 백민교회, 웨체스터장로교회, 웨체스터반성교회, 호산나교회, 새광교회, 웨체스터 한빛교회, 은혜교회 | | |
| 19 Staten Island | 뉴욕성결교회(장석진 목사) : (718) 948-0339 | 김해근 목사(은누리영광교회) : (718) 494-5764 | 설교자: 이재덕 목사 |
| | 그리스도한인연합교회, 뉴욕만백성교회, 뉴욕성결교회, 스테틴아일랜드는총은교회, 은누리영광교회, 한마음장로교회, 스테틴아일랜드한인교회, 스테틴한인연합장로교회 | | |
| 20 Manhattan Bronx | 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김용배 목사) : (718) 365-0230 | 장경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 : (917) 825-5204 | 설교자: 김영성 목사 |
| | 뉴욕베델교회, 뉴욕소망장로교회, 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 메트로리턴한인교회, 그루터기장로교회, 뉴욕예수교회, 뉴욕정교회, 뉴욕한인교회, 맨하탄한인교회, 소명장로교회 | | |
| 21 Brooklyn | 뉴욕평안교회(우수환 목사) : (917) 293-5454 | 우수환 목사(뉴욕평안교회) : (917) 293-5454 | 설교자: 최병철 목사 |
| | 뉴욕평안교회, 브루클린연합감리교회, 참좋은교회, 브루클린제일교회, 뉴욕한인연합교회, 뉴욕남산교회, 뉴욕포도원장로교회, 브루클린영생장로교회, 연합시대교회 | | |
| 22 L.I. 1 | 참사랑교회(은희근 목사) : (516) 512-4424 | 임병남 목사(뉴욕평화교회) : (718) 962-5131 | 설교자: 은희근 목사 임병남 목사 |
| | 뉴욕산정현교회, 뉴욕알곡교회, 새인약교회, 영원한교회, 뉴욕평화교회, 참사랑교회, 시민교회, 뉴욕중앙산정현교회, 뉴하이프한인교회, 뉴욕소명교회, 뉴욕성문감리교회 | | |
| 23 L.I. 2 | 뉴욕예일장로교회(김중훈 목사) : (347) 251-0009 | 김중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 (347) 251-0009 | 설교자: 김성형 목사 |
| | 뉴욕예일장로교회, 뉴욕감리교회, 뉴욕반성교회, 뉴욕순신장로교회, 뉴욕주의빛교회, 확산교회, 뉴욕물대동산교회, 뉴욕성결성결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뉴욕말씀장로교회, 뉴욕참빛교회 | | |
| 24 L.I. 3 | 뉴욕로클린한인교회(김사무엘 목사) : (516) 317-3166 | 박성원 목사(뉴욕풍성교회) : (718) 683-8884 | 설교자: 박마이크 목사 |
| | 뉴욕빌리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교회, 할렐루야뉴욕교회, 주비전교회, 뉴욕능력성결교회, 한마음침례교회, 뉴욕풍성교회, 뉴욕로클린한인교회(뉴욕영성감리교회), 불레성교회 | | |
| 25 L.I. 4 | 뉴욕서성교회(김종일 목사) : (513) 226-3579 | 장재용 목사(롱아일랜드연합교회) : (860) 794-1671 | 설교자: 김종일 목사 |
| | 뉴욕서성교회, 한나선교회, 열리교회,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좋은이웃교회, 아름다운교회 | |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회장 김승희 목사 서기 송일권 목사
총무 장경혜 목사 준비위원장 박맹준 목사

***** 부활절 평가회는 4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금강산 *****
준비물은 헌금과 참석인원과 후보 한 장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축하 광고

Happy East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 | | | | | | |
|--|--|--|--|--|--|--|
|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0991 Cell.(714)521-4636</p> |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323)913-4494</p> |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0691 Fax.(562)691-0698</p> |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2779 Fax.(213)481-3761</p> | <p>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p> <p>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Tel. (213)215-8523 Fax.(213)977-1183</p> |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714)772-0777</p> |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2295 Fax.(718)762-4693</p> |
|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p> <p>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p> <p>Tel. (718)361-9199 Fax.(718)361-9433</p> |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7987 Fax.(516)883-1961</p> | <p>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p> <p>7 Jarvis Ave., Syosset, NY 11791</p> <p>Tel. (516)938-0383 Fax. (516)938-3824</p> |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p> <p>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p>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p> |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p> <p>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p>Tel. (718)639-3021 Fax.(718)507-6376</p> |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9194 Fax.(201)943-5204</p> |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p> <p>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p> <p>Tel. (303)422-6950 Fax.(303)422-6943</p> |
| <p>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형은</p> <p>424 N. Western Ave. L.A., CA 90004</p> <p>Tel.(323)466-1234 Fax. (323)466-0816</p> |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702)257-9191</p> | <p>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p> <p>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p> <p>Tel. (702)749-9909 Fax. (702)478-7224</p> |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2171 Fax.(718)961-3631</p> |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0691 Fax.(610)222-0692</p> |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2202 Fax(213)381-2535</p> | <p>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p> <p>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Tel. (410)461-1235 Fax.(410)461-6823</p> |
|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1512 Fax.(215)945-2095</p> |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4579 Fax.(508)435-5467</p> |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p> <p>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Tel.(626)339-6177 Fax.(626)967-3078</p> | <p>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p> <p>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p> <p>Tel.(310)749-0577</p> | <p>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p> <p>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p> <p>Tel. (714)524-8800 Fax.(562)690-8044</p> | <p>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0900 Fax.(704)529-0998</p> |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p> |
| <p>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만수</p> <p>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Tel. (818)952-2449</p> | <p>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0981 Fax.(206)524-1746</p> |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p> | <p>얼바인침례교회</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9425 Fax.(949)857-9472</p> |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p> <p>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0288 Fax.(215)542-9037</p> | <p>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p> <p>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Tel.(347)753-4551</p> | <p>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p> <p>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p> <p>Tel.(718)570-5858</p> |
|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1490 Fax.(915)751-4365</p> |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p> <p>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p> |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4447 Fax.(703)941-4448</p> |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7500 Fax.(804)560-7514</p> |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310)530-8400</p> |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1150 Fax.(718)672-1151</p> |
|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4040 Fax.(718)358-7789</p> | <p>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p> <p>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Tel. (215)927-0630 Fax.(215)927-0643</p> | <p>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효우</p> <p>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p> <p>Tel. (213)381-9490 Fax.(213)385-9191</p> |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4738 Fax.(860)647-0565</p> |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1859</p> |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1103 Cell.(917)922-0500</p> |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5252 Fax.(808)947-5151</p> |